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지역학석사학위논문

근·현대 천황상(天皇像)에 대한
민중의 인식 변화 연구



2017년 2월

부경대학교국제대학원

일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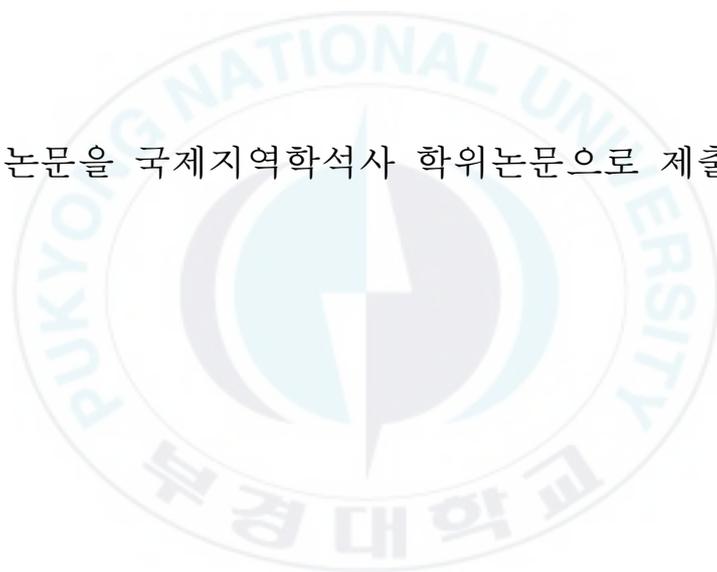
박영희

국제지역학석사학위논문

근·현대 천황상(天皇像)에 대한
민중의 인식 변화 연구

지도교수 신 종 대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학과

박영희

박영희의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2월 24일



위원장 장상언 (인)

위원 김진기 (인)

위원 신종대 (인)

목 차

Abstract	iii
I. 서론	1
1.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5
3.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8
II. 근·현대 천황상(天皇像)의 전개	10
1. 양이의식(攘夷意識)으로 본 근대 전환기의 천황상과 민중 ..	10
2. 근대 이후부터 전전(戰前)까지의 천황상	15
3. 전후(戰後)의 천황상	19
4. 근대 천황상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갈등	23
III. 근·현대 천황상에 대한 민중의 인식 형성 ...	32
1. 민속적 의례로 만들어진 천황상과 민중	32
2. 전국순행(巡幸)으로 만들어진 천황상과 민중	40
3. 국가적 공식문화 속의 민중	56
IV. 근·현대 천황상에 대한 민중의 인식 변화 ...	60
1. 근대 이후부터 전전(戰前)까지의 민중인식	60
2. 전후(戰後) 상징천황제(象徵天皇制)에 대한 민중인식	63
3. 여론조사로 살펴본 천황에 대한 민중인식	66

V. 결론	73
참고문헌	79

【표 목 차】

【표1】 축일의 역사적 변천	38
【표2】 메이지천황의 전국순행 연차 및 횡수	51
【표3】 전후 쇼와천황의 전국순행 일람	55
【표4】 천황에 대한 감정(전체)	68
【표5】 천황에 대한 감정(16~29세)	69
【표6】 천황에 대한 감정(30~59세)	69
【표7】 천황에 대한 감정(60세 이상)	70
【표8】 헤이세이 이후의 신년일반참하객수	72

A Study on the Perception Change of the Japanese Public for the Image
of Emperor in the Modern History

Park Young-Hee

Major in Japanese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Japanese Emperor System and traditional culture is considered so importantly that it is said to define the value system of Japanese people. Tracking back to the Meiji Restoration, which announced the beginning of the modern time, the Emperor was regarded as a human god with absolute power and transcendental authority. After the defeat in War, however, the Emperor was re-created as humanly/symbolic Emperor through Human Declaration. Re-created impression of Emperor enabled the image change as the symbol of nationwide unification. Through this it was meant to establish the national foundation with the Emperor System. Setting historical incidents like this as a turning point, The Japanese Emperor has been repeatedly regenerated and modified his public image.

This thesis confirms that folkloric ritual or national culture was utilized for reconstituting the Emperor's public image, and reconstituted impression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public's perception change. Based on the broad literary reference within and out of the nation and closely analyzing the modified image of Emperor and everyday culture of the public, I verifi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mperor's impression and the public has led the modernization of Japan. Thus, taking not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age making of the modern Japanese Emperor and the public who accepted the created image, I studied that the image and the public are closely related

to folklore rituals and national culture.

Firstly, I confirmed that the image of modern Emperor, which was shaped in the process of nation-state creation, contained an absolute authority that transcended tradition and civilization.

I also confirmed that in order to establish the Emperor's image the era demands, tradition-claiming new folklore rituals and national culture are utilized as tools. Then I revealed that those national events have repeatedly re-formed and reproduced as occasion demands.

Lastly I took notice that the Emperor System overcame the risk of vanishing after the defeat in War and is maintained with the support of the public. This can be viewed as the result of emphasizing image renovation through re-formed/reproduced folklore rituals and national culture. In other words, the image of Japanese Emperor is the central role that created the Japanese modernity during the process of history.

Lately, a new transition is predicted as Emperor Akihito expressed intention of abdication during his lifetime. Until now, Japanese Emperor System has been succeeded as a cultural tradition. Considering that the system came out as the leading role when nationwide unification is needed such as historical transition era or social crisis, it is demanded that the newly appeared Emperor System must be paid attention and examined.

I. 서론

1.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메이지유신(明治維新)¹⁾을 전후하여 무소불위(無所不為)의 절대적 권력이 주어지고 국민통합과 부국강병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부상한 것은 천황(天皇)이었다. 천황은 나라(奈良)시대부터 헤이안(平安)시대 초기까지의 약 200년 동안에는 실질적인 통치를 하였으나, 이후 무사(武士) 계급이 전국을 지배하게 된 11세기 말부터는 정치적 실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종교적인 권위만을 유지해 왔다.²⁾ 이러한 천황의 역할은 일

1) 메이지유신의 개시 시기는 여러 설이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메이지유신 원년인 1868년 10월 23일(음력 9월 8일)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년인 1867년(케이오慶応, 3) 대정봉환(大政奉還)과 왕정복고(王政復古) 이후의 개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종료 시기는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 1873년 지조개정(地租改正), 1877년 세이난전쟁(西南戰爭), 1889년 헌법발표 등의 여러 설이 있다.

ウィキペディアフリー百科事典 참조.

2) 다카시 후지타니(T. Fujitani) 著 한석정 訳(2003) 『화려한 군주(Splendid Monarchy :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이산, p.20.

민속학자 미야타 노보루(宮田登)는 천황에 대한 민간 설화를 수집·분석한 결과 일본의 일부지역에 나타난 천황과 황태자에 대한 신앙은 마레비토(客人:마을에 찾아와 세속에 복을 준다는 신성한 존재)신앙과 중첩된다고 주장하였다.

今谷明(1991) 『天皇制はなぜ続いたか』 新人物往来社 참조.

한편 이마타니 아키라(今谷明)는 『天皇制はなぜ続いたか』에서 천황의 권위는 모종의 정치적인 권위 즉 처벌(治罰)의 윤지(綸旨)와 영전(榮典)으로서의 관위 임명권은 가지고 있었으나 종교성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권위 상실 후의 천황제의 존재가치를 기존의 제사장으로서의 종교성으로 알려진 바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본의 역사상 크게 두 번의 전환기를 마주하게 된다. 먼저, 약 7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천황의 종교적 권위는 18세기 말부터 심화되는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응하며 그 권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이후 메이지유신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천황의 상승된 권위는 메이지유신을 전후하여 급속하게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절대군주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첫 번째 전환점을 마련한다.

두 번째는 절대주의 천황제가 패전 이후 상징천황제(象徴天皇制)로 개편되면서 신격화되고 위계적이던 천황상(天皇像)도 인간적·친화적으로 변모한다. 이렇게 일본의 근·현대 천황제는 메이지유신과 패전이라는 변혁기를 통해 정치·역사·문화·사회 등의 여러 분야에서 간단하게 논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근대 국가의 성립 과정부터 모든 가치 질서가 천황을 정점으로 수행되어 패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일관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³⁾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천황제가 있다, 우리의 피부 감각에도 천황제가 있다”고 단언한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⁴⁾의 견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천황은 일본 사회와 역사·문화의 정체성으로 대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일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심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영혜는 천황을 고유한 일본의 전통이며,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의 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⁵⁾ 이처럼 천황은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메이지헌법에서는 천황이 국가원수이자 통치권을 총괄하는 지위로 규정되어 있었고, 패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에서는 “천황은 국가와 국민통합의

3) 박진우(2006) 『21세기 천황제와 일본-일본 지식인과의 대담-』 논형, pp.19-20.

4) 일본의 문예평론가이자 중국문학자이다. 일본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평론을 발표했으며 일본의 문화구조가 노예적이고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지식인층이 가진 진보주의를 비판하였다.

5) 한영혜(2001) 『일본사회개설』 한울, p.73.

상징”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천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의 과거나 현재를 이해할 수 없도록 천황제 중심주의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⁶⁾ 일본의 역사에서 근대 이후 천황의 존재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등장한 메이지천황을 기점으로 전전까지는 절대주의적 현인신(現人神)으로, 패전 이후에는 쇼와(昭和)천황의 ‘인간천황’ ‘상징천황’의 변용으로까지 이어져왔다. 오늘날 천황에게 남은 것은 일본의 상징적 의미와 정신적 권위뿐이지만, 여전히 일본 국민은 천황제를 거부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지와 존경심을 보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메이지유신 전후부터 패전 이후까지의 복잡한 천황의 표상(表象)이 어떻게 민중의 인식에 수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천황제 지지로 이어졌는가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당시의 지배 권력은 천황제 이데올로기 확립과 신성불가침한 통치권자로서의 천황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민중에게는 교육칙어(教育勅語)⁷⁾를 통해 일방적으로 침투시켰고, 서구의 의례를 재창조와 모방의 행위를 매개체로 하여 추구하였다.⁸⁾ 또한 근대 천황상은 패전을 경계로 평화적·인간적·가정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행보를 이어나가며 새로이 재창출되기에 이른다.⁹⁾ 그러나 그것은 창조 속에 전통의 이름으로 위어내는 근대 천황상의 절대적 권위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야 했다. 여전히 천황은 일본인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경외와 숭배의 대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강력하게 통제된 권위 안에

6) 조용래(2009) 『천황제 코드』 논형, p.36.

7) 한영혜(2001) 앞의 책, p.79.

1890년에 발표된 일본 교육의 근본 방침을 명시한 메이지천황의 칙어로서, 충·효를 핵으로 한 유교적 덕목을 기초로 삼고 국가가족관에 입각해서 충군애국(忠君愛國)을 궁극적인 국민도덕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를 전국 각 학교에 배포하여 예배·낭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침투시키고자 하였다.

8) 한영혜(2001) 앞의 책, p.73.

9) 손안나(2010) 「쇼와천황(昭和天皇)의 전후 순행과 상징천황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 논문 참조.

서 가공된 천황상은 오랜 시간동안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민중에게 인식되어 왔을까?

본 연구에서는 가공된 천황상을 전통적 민속의례 및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적 공식문화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천황에 대한 민중의 인식이 어떻게 전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립과 갈등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전개과정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근·현대 일본의 천황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역사 안에서의 일본 근대화 과정이 민중의 인식을 수용하고 배려한 가공된 천황상과의 상호조합을 통해 전개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일본국민의 천황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천황은 여전히 일본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국민은 변함없이 상징천황제를 지지하며 존속을 희망하고 있다. 천황에게 정치적 실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표상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와 연속성은 지니지만,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사회로의 질적 전환을 위한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사실에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천황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전통의 이름으로 새겨진 주요 민속의례와 여러 국가적 공식문화를 통해 일본민중에게 새겨진 천황상의 참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최근 아키히토(明仁)천황이 직접 생전퇴위의 의향을 밝히면서 일본의 새로운 천황제가 예고되었다.¹⁰⁾ 제2의 ‘인간선언’으로 평가되고 있는 천황의 생전퇴위 발언 속에서 엿볼 수 있었던 가족과 아내를 생각하는 인간적인 모습은 분명히 일본인들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¹¹⁾ 따라서 현대에

10) 아키히토(明仁)천황이 2016년 8월 8일 생전퇴위 의향을 공식화하면서 황실법 개정을 포함한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황실전범(皇室典範)에는 천황의 중도 퇴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1) 保坂祐二(2016. 9. 5) 「[일본은 지금] 인간이 되고 싶다는 일왕의 ‘생전퇴위’ 메시지」 이투데이 칼럼.

이르기까지의 천황상과 민중인식의 관계를 검토하는 일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의 새로운 역할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재변형과 재생산을 거듭할 천황제에 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연구의 필요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근대 천황상과 민중에 관련된 학계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활용한 문헌연구이다. 그런 까닭으로 필자는 박진우의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와 민중 -근대 천황상의 형성과 민중-』¹²⁾과 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의 『近代天皇像の形成』¹³⁾, 그리고 다카시 후지타니(T. フジタニ)의 『화려한 군주-근대 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¹⁴⁾등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 고자 한다.

박진우는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와 민중-근대 천황상의 형성과 민중-』에서 천황숭배와 배외(排外)적 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문제뿐 아니라 메이지유신을 전후로 한 시기가 근대 천황제 권력이 형성되어 가는 과도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작위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창출과 이에 대한 민중의 갈등은 이후의 시기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민중들에게 어떻게 침투 되었으며 민중의 자발적인 지지와 동의가 가능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데

12) 박진우(2004)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와 민중-근대 천황상의 형성과 민중-』 J&C.

13) 야스마루 요시오 著 박진우 訳(2008) 『근대 천황상의 형성』 논형.

14) 다카시 후지타니(T. Fujitani) 著 한석정 訳(2003) 『화려한 군주, Splendid Monarchy :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이산.

대해서는 국가 신도(神道)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는 국가 신도의 이데올로기는 전통적인 민속신앙을 교묘하게 흡수하여 새롭게 창출한 환상의 구축물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선험(先驗)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믿게 만들어 자발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현인신(現人神)과 조상에 대한 숭배를 결합한 경신숭조(敬神崇祖)의 관념이야말로 세대와 계층, 정파 간의 입장, 개별 종교적인 하위문화를 초월하여 일본 파시즘(fascism)이 민중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화적·사회적 토대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⁵⁾

야스마루 요시오는 ‘천황제는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전제하에 천황제의 연속설과 단절설¹⁶⁾ 가운데 천황제를 비판하며 단절설의 입장에 선 역사학자이다. 근대 천황제를 대상화하여 해석하였고, 천황이나 천황제가 역사적 변용으로 단절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近代天皇像の形成』에서는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본이 독자적인 편성 원리로 내세운 것이 근대 천황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천황제를 논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은 근대 전환기에 있어서 천황제를 둘러싼 일본인의 정신적인 동태를 해명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 기간을 메이지유신을 사이에 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까지의 약 1세기 안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천황제에 관한 이미지나 관념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단, 천황 개인이나 제도에 입각한 문제가 아니라 천황을 둘러싼 이미지나 관념, 그리고 그 의식적인 규제력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

15) 박진우(2004) 앞의 책 참조.

16) 야스마루 요시오 저 박진우 訳(2008) 앞의 책, p.20-21.

황위의 만세일계를 강조하거나, 대상제(大嘗祭)처럼 오랜 전통을 지키는 의례에 핵심을 두는 것이 연속설이다. 이에 반해 단절설은 섭정(攝政)과 원정(院政)에 의한 권력 장악, 중세·근세의 유소년(幼少年) 천황, 아시카가씨(足利氏)에 의해 옹립된 북조(北朝), 그리고 최근 이마타니 아키라(今谷明)가 논증한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에 의한 왕권찬탈계획, 노부나가(信長)·히데요시(秀吉)·이에야스(家康)에 의한 조정의 이용, 에도막부(江戸幕府)의 철저한 조정지배 등에는 커다란 단절면이 있다는 설이다.

다.¹⁷⁾

다카시 후지타니는 『화려한 군주 - 근대 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에서 일본 내셔널리즘의 특이성 분석을 통해 일본의 전통과 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천황이 근대의 창조물임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근대 전환기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 민중들이 천황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에도(江戸)시대의 천황에서 시작하여, 옛 수도인 교토(京都)와 새로운 수도인 도쿄(東京)의 위상에 따른 갈등과 조정,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지배층의 서구 의례 모방과 메이지유신 전후의 천황의 이미지의 변화, 민중과 황실 패전트(pageant)¹⁸⁾의 관계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근대 국민국가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에 문화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적인 공식문화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후지타니는 황실 패전트, 즉 전국순행(巡幸)을 포함한 국가적인 공식문화의 국가의례와 상징물, 기념일 등은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육성되고 동질화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한 역사 상황 속에서 지역적이고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분절적인 민중문화와 균일하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는 지배자의 문화를 구별하고 있다.¹⁹⁾

이처럼 근대 천황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새롭게 만들어진 근대 천황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적 관점에서 천황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속에서 근·현대 천황제와 민중과의 관계를 전통적이고 문화적으로 상호 연관시킴으로써 민중의 변함없는 천황제 지지의식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대 전환기 이후부터 쇼와

17) 安丸良夫(2001) 『近代天皇像の形成』 岩波書店, pp.28-30.

18) 황실의례를 비롯한 국가적 행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19)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p.43-56.

(昭和)시대에 이르기까지를 중심으로 여러 자료들을 보강하여 근·현대 천황상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시대적 상황과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발생한 가공된 천황상과 민중의 저항 및 갈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민속적 요소와 국가적인 공식문화를 통해 수용된 천황상에 대한 민중의 인식 변화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역사적 변천을 겪으면서도 천황제를 지탱해온 일관되고 관념적인 천황상의 전통성과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모해 온 천황상을 함께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일본에서 근·현대의 구분은 전전을 근대, 전후를 현대로 간주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근대의 시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1868년 메이지유신에 의한 황실의 대정봉환(大政奉還)·왕정복고(王政復古)를 기준으로 하는 설과 에도시대 말기인 1854년의 일미화친조약(日米和親條約)에 의한 개국을 기준으로 하는 설이다²⁰⁾.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창출될 수밖에 없었던 근대 천황상을 일본 근대사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메이지유신을 경계로 하여 사회적 혼란과 민주주의·평화주의의 커다란 전환점이자 천황제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던 패전 이후 쇼와시대까지로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메이지천황과 쇼와천황이 중심이 되며 여기에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할 민중에게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일방적으로 침투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근·현대 천황상과 민중의 관계를 민속의례와 국가적 공식문화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먼저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주요 키워드의

20) ウィキペディアフリー百科事典 참조.

개념과 대내외적 위기 심화에 따라 근대 전환기에 나타난 양이과와 민중의 배외의식에서 보여준 공통적인 양이의식을 통해 천황상과 민중의 반응을 살펴본다. 또한 메이지유신 전후의 천황상의 등장 과정과 기능을 제시하여 근대 전환기에서 전후까지 지배세력이 창출하고자 했던 근·현대 천황상의 전개과정을 분석한다. 그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민중의 저항이나 갈등에 관한 제시와 그 봉합과정도 분석하여 정리한다.

Ⅲ장에서는 근대 이후 국민통합의 연결고리 역할을 주도한 민속적 의례와 민중과의 직접적 접촉이 이루어진 국가적 공식문화 속에서 천황과 민중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예를 들면 천황의 전국순행, 메이지헌법 발포식의 행렬, 천황의 은혼식(銀婚式) 행렬, 그리고 신년일반참하(新年一般參賀) 등이다. 이러한 국가적 공식문화를 통해 권력의 지배층이 만들고자 했던 천황상에 대한 민중의 반응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천황제의 변환점이 된 ‘상징천황제’를 기준으로 전전(戰前)과 전후(戰後)의 천황상에 대한 민중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1973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NHK의 「日本人の意識」 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천황에 대한 현대 일본인의 인식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천황제를 고집하는 일본 현대의 천황상과 민중의 인식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Ⅱ. 근·현대 천황상의 전개

1. 양이의식(攘夷意識)으로 본 근대 전환기의 천황상과 민중

천황은 중세와 근세를 통해 미카도(帝), 다이리(内裏), 텐시(天子), 인(院) 등의 갖가지 명칭으로 불렸으나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천황이라는 칭호로 통일되었다.²¹⁾ 그 이전까지 민중과는 무관했던 천황의 존재는 1868년 1월 왕정복고(王政復古)선언 이후 혼란스러운 민심 수습과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천황의 위상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천황 의식의 생산은 유신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민중의 의식개조를 위해서 국가의 중심적 존재로서의 천황상을 인민고유(人民告諭)²²⁾ 반포를 통해 선전하게 된다.²³⁾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민중은 피지배자나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서민이나 생활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임과 동시에 안정된 생활, 보다 나은 생활, 보람 있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근대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²⁴⁾ 마키하라 노리오(牧原憲夫)는 에도시대에

21) 安丸良夫(2001) 앞의 책, pp.168-169.

22) 천황을 “참으로 신보다도 존귀한 천자(天子)이며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일본의 주인이셨으며 한 뼘의 땅, 한 명의 백성까지 모두 천자님의 것이다”라고 하였다. 메이지헌법과 함께 천황의 이름으로 공포된 교육칙어는 이 인민고유(人民告諭)가 강화된 형식이다.

23) 정창석(2006) 「현대천황제 사상」 『학술발표대회논문집』 7 한국일본어문학회, p.449.

는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신분은 무사뿐이어서 민중을 손님에 비유하였으며, 이들을 각각 주택 소유자와 셋집에 사는 사람으로도 비유하였다.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면 집주인은 집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세든 사람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근대를 맞이하면서 손님이라는 의식은 부정되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였다.²⁵⁾

천황상은 특정한 하나의 이미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현인신, 만세일계(萬世一系)와 같은 관념상의 천황상과 민중에게 자애를 베푸는 인정(仁政)의 심벌, 또는 군복을 입은 위압적인 국가 원수 등과 같은 복합적인 이미지를 떠 올릴 수 있다.²⁶⁾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의해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재창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의 천황상은 관념적인 천황상을 배경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연출되고 의도된 다양한 가공(架空)의 존재로서의 이미지와, 그것을 수용하는 민중의 천황상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근대의 천황상은 메이지유신이라는 변혁기에 분출되는 민중의 갖가지 요구에 대한 억압에서 출발하였으며, 국가 의지를 관철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권력의 폭력성에 대한 민중의 저항 및 반감 완화와 국가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인 애국심을 이끌어내고 국민적인 결집을 강화할 목적으로 창출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⁷⁾

24) 일본부락해방연구소 著 최종길 訳(2010) 『일본 부락의 역사』 도서출판 어문학사, p.187.

일본의 근대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입헌국가로 방향을 정하면서 형식상 ‘에타(穢多)’ ‘히닝(非人)’도 평민의 일부에 편입되었고, 제국신민으로서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었다.

25) 牧原憲夫(2005) 「近大民衆(生活者)政治意識を考ふる」 『金沢大学文学部日本史学研究室 紀要』 金沢大学文学部日本史学研究室, pp.1-7참조.

26) 박진우(2004) 앞의 책, p.20.

27) 박진우(2004) 앞의 책, p.29.

야스마루는 근대 천황상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걸쳐 근대 국가의 새로운 질서 편성의 원리로 형성된 이데올로기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를 구성하고 있는 관념적인 기본요소를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1)만세일계의 황통으로 집약되는 계통성 질서의 절대성과 불변성, 2)제정일치의 신정(神政)적인 이념, 3)천황과 일본국에 의한 세계지배의 사명, 4)문명화를 추진하는 정치 카리스마로 정리 분석하며 근대 천황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²⁸⁾

막말(幕末)부터 부상하게 되는 천황상은 민속 종교적인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현세이익, 혹은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욕구나 소원(所願)을 채워주는 신적인 권위에 가까운 것이었다.²⁹⁾ 이러한 현상은 특히 막번(幕藩)체제의 동요가 심화되던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19세기에 들어와 덴메이(天明)기³⁰⁾이나 덴포(天保)개혁³¹⁾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불황이 계속되면서 교토의 황궁을 둘러싸고 나타난 ‘센도마이리(千度参)’라고 불리는 시위는 욕구와 소원을 채워주는 신적 권위로서의 천황에 대한 민중의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1858년의 콜레라 유행에 즈음하여 병의 치유를 천황의 권위에 가탁(假託)하는 행위는 민속 종교적인 전통에 의거한 욕구와 소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세기 민중들 사이에서는 대외적 위기에 따른 양의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위기에 대응하여 부상하는 천황상을 수용하기 쉬운

28) 安丸良夫(2001) 앞의 책, pp.12-13.

29) 박진우(2004) 앞의 책, p.34.

30) 덴메이(天明) 연간(1782-1788)에 일어난 에도시대 최대의 기근이다. 도호쿠(東北)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이 아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31) 덴포(天保) 연간(1830-1843)에 행해진 막부(幕府)와 번(藩)의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화폐경제 발달에 어려움을 겪던 막부 재정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러 번에서도 번정 개혁이 이루어진다. 교호개혁(享保改革), 간세이개혁(寬政改革)과 함께 에도시대 3대 개혁의 하나로 손꼽힌다.

여건을 형성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런데다 개국에 따른 경제적 혼란은 민중의 생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日本庶民生活史料集成』 第2卷의 내용을 통해 “이국(異國)과의 교역을 허락하여 국가를 어지럽히고 만민의 고통이 극심하다. 이 교역이 2~3년 계속된다면 필시 소동이 일어나 관동(關東)지방은 들판이 되어버릴 것”이라든가, “만물의 값이 오른 것은 교역 때문이다. 이 교역이 계속된다면 일본 전국의 만민이 곤궁에 빠질 것” 이라는 등의 내셔널한 민족의식을 자극하는 풍문이 빈번하게 나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이파 지사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권력 창출이라고 하는 천황상을 민중이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³²⁾

그러나 민중이 원하는 변혁과 양이파 지사들의 권모술수에 의한 보국구민(保國救民), 안민제세(安民濟世) 등은 서로 이해관계와 목적이 달랐다. 민중구제와 이적(夷狄)이라는 공통된 적(敵)은 존재했으나 양자간의 본질적인 상이성(相異性)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양이운동의 주체세력이 메이지유신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민중구제나 양이의 슬로건에 등을 돌리게 되면서 양자간의 상이성은 본질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민중의 양이의식 형성에는 개국에 따른 경제적 혼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신국의식에 의거한 기독교=사교(邪教)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선전도 배외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민중들에게 서양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증폭되었고, 권력은 기독교를 사악한 종교로 취급하며 민중의 이국인에 대한 호기심을 차단하고 있었다.³³⁾ 그러나 이러한 민중의

32) 박진우(2004) 앞의 책, pp.34-37.

조슈정벌(1864~1866)에 즈음하여 민중의 반(反)막부 감정이 확대되고 있었다. 막부의 조슈정벌(長州征伐)에 대한 민중의 조슈변 지지는 양이운동이 민심의 지지를 얻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33) 박진우(2004) 앞의 책, pp.38-41.

예를 들면 유신정부가 연공반감령(年貢半減令)을 불과 며칠 만에 철회하고, 안민(安民)을 전면에 내세우는 세키호타이(赤報隊)의 주모자를 처벌한 것은 민심 지지를 표

배외의식은 대외적인 위기에 대응해 부상하게 되는 천황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권력에 의해 조장되었던 민중의 배외의식은 민속축제와 같은 전통적 요소를 매개로 민중의 적극적인 자발성과 활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神奈川県史』 資料編에는 가나가와(神奈川)현의 경우는 6개 신사(神社)의 간누시(神主:신사에서 신을 모시는 사람)일동이 모여 단오절을 이용해 민속축제를 대대적으로 거행함으로써 양이기원을 꾀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京都町触集成』에서도 교토의 1862년 신상제(神嘗祭)에 즈음해서 민간에게도 천황에 대한 참여(参詣)를 허락함으로써 양이기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민중의 양이의식은 민속축제를 통해 표출되었던 것이다. 반면 지배 권력이 내세운 기본적인 천황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제정일치의 질서 속에 민속을 재편하고자 하였다.

민중의 양이의식은 페리 내항에 즈음해서 급증하는 풍문서(風聞書)나 가와라반(瓦版)³⁴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속에는 신국(神国)·신풍(神風)·훈(魂)과 같은 용어가 이국(異国)에 대항하여 일본 전체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천황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제정일치의 질서 속에 민속을 재편하고자 했던 이데올로기적인 근대의 천황상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일본을 가리키는 신국·신풍 등의 어휘가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관념적인 천황상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는 만세일계 또는 황국(皇国)·황위(皇位)와 같은 표현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

방하는 세력이 민중과 결합되는 것을 우려하고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한 조치였다.

34) 박진우(2004) 위의 책, pp41-43.

화재나 천재지변 등의 사회적 사건을 전하는 서민들의 정보 소스로서 에도시대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중기부터는 정치적 사건도 취급하게 되면서 막부로부터 종종 탄압을 받았다. 페리 내항을 취급한 가와라반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보다는 독자들의 재미를 중시했던 까닭에 정치 풍자로서도 세련된 것이 많았다. 1853년부터 54년에 걸쳐서 약 400종의 가와라반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한다.

다. 또한 가와라반의 그림을 보면 대일본국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마쿠라 곤고로(鎌倉権五郎)의 분장을 하고 있다. 이 가마쿠라 곤고로는 악을 박멸하고 선을 돕는다고 전해지는 민속적인 인물이며 천황이나 아마테라스와는 전혀 무관한 존재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민중의 배외의식을 이데올로기적인 천황상과 직결시킬 수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³⁵⁾ 이와 같이 민중은 양이에 있어서는 막말의 지사들과 외견적인 공통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대 천황상의 관념적 이데올로기와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근대 이후부터 전전(戰前)까지의 천황상

문명 개화기로 접어들면서 계몽 사상가들과 복고주의 국체론자(国体論者)들 사이에 천황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메이로구샤(明六社)³⁶⁾를 중심으로 한 계몽 사상가들은 미개한 사회에서 종교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함께 국체론자들을 비판하면서, 서구 사회를 모델로 한 정교분리(政教分離)를 주장하였다. 이에 국체론자들은 제정일치의 입장에서 천황 신격화를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고주의적인 국체론에 입각하여 메이지정부의 서양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대외적 위기에 대한 배외의식이 두드러지게 표출되며, 이에 상응해서 천황의 전통적 권위가 맹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들은 당시 개화를

35) 박진우(2004) 앞의 책, pp.43-44.

36) 메이지시대 초기에 설립된 일본 최초의 근대적 계몽 학술단체. 1873년(明治 6) 7월에 미국에서 귀국한 모리 아리노리(森有禮)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니시 아나메(西周)·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쓰다 마미치(津田真道) 등과 함께 그 해 가을에 결성하였다. 이듬해 「메이로쿠(明六)」 잡지를 발행하고 각종 강연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계몽사상을 보급하는데 힘썼다.

방해하는 무리³⁷⁾로 배척당하기도 하지만, 전통과 문명을 접목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천황상을 창출하려는 발상은 이후 근대 천황상의 이데올로기적 근간을 이루는 논리로 발전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천황상은 서양의 문명과 결코 동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정의 생각은 황도(皇道)를 주로 하고 이를 보필하는 것은 한양(漢洋)의 설로 한다”³⁸⁾ 또는 “일본은 신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이고 외국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본가(本家)이며, 외국은 말가(末家)이다”³⁹⁾라는 주장을 통해서도 신대(神代)의 전통이 항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메이지정부의 개화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발간된 책자에도 문명개화를 선두에서 추진하는 신권적인 천황상이 전개되었다.

두 번째로 일본의 국체는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독선적인 신국관에 의거하여 천신(天神)계통의 일군(一君)을 존송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왕정복고 이후에는 구시대의 폐습을 모두 버리고 서양 문명의 장점을 채용하여 민중을 자애로 다스리며 그들에게 자유를 내리는 것은 더 없이 고마운 일이라고 하여 모든 개화정책은 천황의 자비라고 선전하였다. 결국 천황의 자비로운 인정(仁政)은 합리적 가치관이 아닌 신대(神代) 이래의 전통 카리스마⁴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천황상은 “전국 시골 벽지에 이르기까지 존엄한 황법(皇法)에 귀의하지 않는 백성이 없기를 바란다. 그들이 왕화(王化)의 혜택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에 이르면, 자연히 불모지도 없어질 것이며 모든 작물을 축적하게 될 것”⁴¹⁾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선두에서 문명개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37) 遠山茂樹 編(1988) 『天皇と華族』 日本近代思想大系2 岩波書店, p.147.

38) 박진우(2004) 앞의 책, p.68.

39) 安丸良夫·宮地正人 編(1988) 『宗教と国家』 日本近代思想大系5 岩波書店, pp.158-159.

40) 야스마루는 천황 개인에게는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존재하지 않고 전통적인 요소 속에서 이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근대 천황상의 경우 아마테라스(天照大神) 이래 성성(聖性)의 계승과 제정일치를 통해 신권적인 권위성이 강조되었다.

41) 牧原憲夫 編 『明治建白書集成』 第3卷 p.513.

절대적인 권위성을 가지고 무지몽매한 민중을 왕화하는 역할이었다.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문명화의 섭취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천황 중심의 체계를 통해 극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⁴²⁾

이즈모다이샤(出雲大社)의 궁사(宮司)였던 센게 다카토미(千家尊福)는 1874년에 제출한 신기관(神祇官) 재흥⁴³⁾의 건백(建白)에서, “신기관 재흥과 국교(國教)의 수립이야말로 문명의 개화로 나아가는 것”⁴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제정일치의 국교 제도 하에 질서를 유지하면서 문명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야스마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찍이 듣기를 서양인이 우리를 보고 동양의 프랑스인이라고 한다. 그 명예를 훼손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당과 분열이 그치지 않기를 프랑스 인민에 유사하게 됨을 두려워한다. 이는 홀로 신(臣)들만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애국자, 조정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자 또한 이와 같다. 따라서 지식을 여는 것은 곧 용(用)이요, 국교를 믿는 것은 곧 체(體)이니, 체와 용이 서로 갖추어져 참된 문명 참된 개화에 이르는 것을 안다면 국교를 과연 확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기관 과연 부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⁴⁵⁾

지나치게 자유와 권리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통 카리스마로서의 천황상을 중심으로 제정일치의 국교 체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42) 박진우(2004) 앞의 책, pp.69-70.

43) 이는 신도를 통해 기독교의 유입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1868년 정부가 민중에게 발표한 5장의 방인 5방게시(五榜の揭示)에서 막부의 기독교 탄압을 계승하였고, 1869년부터는 나가사키(長崎)의 기독교도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구 열강의 압력과 정교분리를 요구하는 불교 측의 저항으로 인해 1871년 신기관은 신기성(神祇省)으로 격하되었고, 1873년에는 기독교 금지령도 해제되었으며, 이후 교부성(敎部省)으로 격하되었다가 1887년 내무성(內務省)에 병합되었다.

44) 安丸良夫·宮地正人 編(1989) 앞의 책, pp.47-48.

45) 박진우(2004) 앞의 책, pp.70-71.

다.

전통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천황상은 서구 문명에 대항하는 전통 카리스마로서 개화정책을 선두에서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몽매한 민중의 선도는 물론이고, 사회의 무질서한 혼란 상황을 막는 권위와 질서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특징이었다. 문명개화기의 천황상이 이처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초월적이고 권위성을 가진 천황상을 통해 전통과 문명의 긴장 관계를 극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천황은 개화 정책을 슬선수범하는 동시에, 국화 문장(紋章)의 사용, 천황의 사진 판매 금지,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인 축일 제정 등의 권위 보강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⁴⁶⁾

그 밖에도 전통 카리스마적인 천황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천황의 신체 개조작업도 변모해 간다. 메이지 초기에는 공식 궁정복인 소쿠타이(束帶)차림에 뒤로 묶은 머리카락, 그 위로 높고 꺾충한 모자, 수염이 없는 얼굴, 굽 높은 나막신을 신은 모습이였다. 그러나 수도를 도쿄로 이전하는 시점부터는 적극적이고 군사적이며 남성화된 이미지로 개조되어 간다. 친정(親政) 천황에 어울리는 서양식 군복, 짧은 머리에 가르마, 콧수염과 턱수염을 길러 남성화를 더 강화시킨 극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즉 서양의 군주를 모델로 하여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동적인 천황상을 창출하였던 것이다.⁴⁷⁾ 나아가 이러한 공적 이미지는 천황뿐만이 아니라 황실의 여성들에게도 옮겨져 봉사와 양육이라는 이상적인 현모양처의 표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천황상이 창조되는 과정은 중앙의 지배 엘리트들이 주도하였고, 문명개화기 이후의 민중동원에는 지방의 권력자 및 지역 유지들이 앞장을 섰다. 지역 단위의 의례장소로 신사와 사찰이 자주 이용되었던 사실

46) 박진우(2004) 앞의 책, pp.71-72.

47)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p.220-227참조.

로 볼 때, 종교 지도자들 역시 천황의 강력한 이미지 창출을 위해 중앙의 지배층을 도운 기성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3. 전후(戰後)의 천황상

1945년 8월, 라디오 전파를 통해 일본의 국민들은 처음으로 천황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항복 선언을 하는 그 방송은 일본의 행정과 경제를 혼란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혼란은 역사 한 페이지의 종결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패전으로 인해 정치와 사회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천황이 자리하고 있었다. 천황제는 점령당국에 의해 폐지의 운명에까지 처하게 되었으나 천황에 대한 일본인의 귀속 정서는 상당히 강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천황이 자국을 위해 필요한 희생을 한 순교자로 간주하였다.⁴⁸⁾ 그리하여 천황은 권력의 원천이었던 근대 전환기의 시대를 거쳐 종교적, 정신적 혹은 정서적 권위만이 남았다. 1946년 신년 칙서(勅書)를 통해 신성(神性)을 포기하였고, 정부와 미군정(米軍政)에 의해 천황은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즉 천황에 대한 경외심이 아닌 존경심을 강조하고, 새로운 천황상을 연출하는 하나의 기점이 되었던 것이다.⁴⁹⁾

전후 쇼와천황의 이미지 변신은 근대화의 선두에서 이미지를 쇄신했던 메이지천황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었다. 메이지천황상이 역

48) 비즐리(W.G. Beasley) 著 장인성 訳(2000) 『일본 근현대사』 을유문화사, p.347.

천황에 대한 정서를 해치는 것은 일본인들 사이에 엄청난 동요를 불러 일으켜 미국의 간접 통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겼다.

49) 비즐리 著 장인성 訳(2000) 앞의 책, pp.351-352.

동적·남성적이며 강한 군주를 상징하고, 전전까지의 쇼와천황상은 영웅적 통치자로서 이어진 반면, 전후의 쇼와천황상은 연약한 인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메이지천황을 떠올리게 하는 강인한 군인 복장이 아닌, 목깃을 끈게 세운 철도원 제복 스타일을 거쳐 양복과 중절모 차림의 민간인으로 변신하였다. 쇼와천황이 퇴위하지 않고 계속 황위에 머무르기로 결심했다는 인상을 국내외에 심으려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이다.⁵⁰⁾

뿐만 아니라 관심분야였던 생물학·시·스포츠 관람 등 평화적인 일에 몰두함으로써 쇼와천황의 이미지는 메이지천황과는 달리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비정치적인 명성을 넓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⁵¹⁾

여기에서 전후 역사와 함께 천황의 이름 앞에 새겨진 상징⁵²⁾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상징의 의미와 국민들의 충성심을 연결시킬 경우 천황의 존재는 충성심의 집약 대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징이라는 것이 사상을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0) 하버트 빅스(Herbert P. Bix) 著 오현숙 訳(2010) 『히로히토 평전』 삼인, p.614.

51)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p.297-298.

52) 정창석(2006) 앞의 논문, pp.465-466.

국가에 있어서의 상징(symbol)이란, 일치되지 않는 국가의 여러 기능들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장소 혹은 어느 시점에 집중·통일시키는 유형·무형의 어떤 요소를 말한다. 국가의 상징은 일반적으로 국기(国旗)·국가(国歌)·국화(国花)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구체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표상하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발휘되고 있다. 일본의 천황을 국가의 상징이라 규정할 경우에는, 천황의 의사표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일본국민이 천황을 내세워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천황 스스로의 능동적인 의사표시는 헌법상 불가능한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이 추상적인 상징물이 될 때, 그 의미는 결국 천황의 이름으로 일본국민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천황은 정치적인 권력이 박탈되고 상징적인 표상물이 되어 헌법이 규정한 국사 행위만을 행하게 되는 경우, 천황의 실체는 메이지유신 이전의 권위로 환원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천황에게 기대하는 것은 전전과 전후 모두 천황이라는 존재에 의한 국민통합이라 말할 수 있다. 상징천황으로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닌 단지 국가 전체를 표상하는 천황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상징이라 하더라도 천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회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⁵³⁾ 이러한 국민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빈번한 전국순행이나 각종 행사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천황은 항상 민중과 함께 있다는 이미지를 조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스처는 민중들 사이에 천황에 대한 친밀감과 황실에 대한 가부장적 환상을 심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⁵⁴⁾

1950년대 이후부터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전쟁으로 얼룩진 쇼와천황으로부터 아키히토(明仁)황태자에게로 옮겨갔다. 그 틈을 타서 정부와 궁내청의 일부 인사들은 황실제도를 국가적 전통의 중심으로 돌려놓으려 하였다. 또한 그들은 황태자를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징천황제로 재구성하여 평화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일본국민의 대표로 만들려고 하였다.⁵⁵⁾

일본의 그 어떤 문학 작가보다 당시의 시대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呉)는 다음과 같은 평론을 내놓았다.

“타락이라는 이 놀랄만한 평범함, 그 평범하고 당연함에 비하면 저 처절하게 위대한 파괴의 애정이나 운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도 물거품처럼 헛된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기분이 든다.”(중략)

“특공대 용사는 단지 환영에 지나지 않고 인간의 역사란 암시장 장사꾼이 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미망인이 사도(使徒)라는 것 또한 환영에 불과하고 새 사람을 그 가슴에 품을 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혹은 천황도 그저 환영에 지나지 않고, 단지 보통 사람이 될 때 비로소

53) 이상훈(2003) 「상징천황제의 딜레마」 『日語日文学研究』 47 한국일어일문학회, p.490.

54) 정창석(2006) 앞의 논문, p.447.

55)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p.297-299.

진실된 천황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중략)

“일본은 패하고 무사도도 멸망했지만 타락이라는 진실된 모태에 의해 비로소 인간이 탄생한 것이다.(중략)”⁵⁶⁾

간단명료한 위의 평론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능력에 의지해 자신을 발견하고 구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무사도나 자신만의 천황제를 창조할 수 있으며, 진정한 주체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국민을 세뇌시키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은 꿈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1988년 9월 쇼와천황의 중태와 그 이후 이어진 1989년 1월 사망 소식까지 각종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진 천황의 새로운 신드롬 현상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쇼와천황의 죽음은 역사상 가장 잘 준비된 죽음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 죽음의 순간부터 장례식에 이르기까지의 약 40일 동안 일본 정부는 합현성과 신비성·서양적 근대성과 동양적 전통을 정교하게 안무해내려고 고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일사불란한 자기규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자숙이라는 낱말을 유행어로 부상시키기도 하였다.

쇼와천황의 병환은 그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가을축제들은 물론이고 결혼식까지도 취소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뿐만 아니라 TV방송국들은 NHK의 선도에 따라 특별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천황의 업적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한 다큐멘터리 방영은 물론이고 새로 등극할 황태자의 다큐멘터리, 그에 어울리는 점잖은 음악까지 준비하는 등 자숙의 흐름 속에서 준비과정은 더욱 세련되고 확대되어 갔다.⁵⁷⁾ 천황이 사망한 1월 7일부터 장례식까지의 6~7주동안 자숙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문부성의 공문에 따라 각

56) 존 다우어(JOHN W. DOWER) 저 최은석 訳(2009) 『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pp.190-191.

57) 노마 필드(Norma Field) 저 박이엽 訳(2014)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 창비, pp.44-46.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상장(喪章)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묵도(默禱) 방법과 연호(年号)의 한자 연습도 지도하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마저도 대상례(大喪禮)라고 하는 새로운 장례 어휘들을 익혀야 했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천황의 죽음에 따른 복잡한 의식이나 절차를 가리키는 한자어들을 접해야 했다.⁵⁸⁾ 이렇듯 언론은 앞장서서 천황에 대한 쾌유를 기원하는 일본 국민의 순수한 마음을 천황 숭배 관념으로 승화시키는 등, 비주체적이고 무조건적인 숭배는 정부가 주도한 과열된 찬미 속에 성스럽고 신격화된 천황의 이미지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⁵⁹⁾ 여기에 천황에 대한 동정과 경의가 더해지면서 상징천황제는 대중화되었고,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4. 근대 천황상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갈등

앞에서는 메이지 초기에 전개되는 천황상과 민중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민중의 민속적인 세계 안에 천황의 권위를 수용하기 쉬운 요소가 분명히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제정일치의 의례적인 권위 아래에 새로운 질서 체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권력 측의 의도와는 달리 상반되는 반질서적인 성격도 자리 잡고 있었음을 파악해야 한다. 신정부로서는 근대 전환기에 내세웠던 존왕양이나 안민제세라는 태도에서 개국화친(開國和親)으로 전환된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민중들에게는 새로운 정치 기대에 걸맞는 천황상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⁶⁰⁾ 그런 까닭으로 메이지 초년부터 전국 각지에

58) 노마 필드 著 박이엽 訳(2014) 앞의 책, pp.257-258.

59) 김필동(2003) 「현대일본인의 천황관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21 일본어문학회, p.321.

60) 박진우(2004) 앞의 책, p.45.

고유서를 하달하여 만세일계의 황통과 왕토왕민(王土王民)사상에 근거한 천황의 인자함을 강조하게 된다.⁶¹⁾ 천황을 전면에 내세워 정치적 효과를 노리면서 민중에게 새로운 권력의 정점으로 인정(仁政) 군주상을 각인시키는데 집중하였던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치 지배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권력이 창출하는 천황상을 민중에게 보다 강렬하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 그 당시에는 영화나 텔레비전 등의 시각적 인상을 줄 수 있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오사카(大阪) 친정(親政)이나 사실상의 도쿄 천도가 되는 재행(再行)을 통해 민중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오사카 친정이나 도쿄로의 ‘동행(東行)’ 또는 ‘재행’ 등을 통한 새로운 천황상의 특징은 인정 군주뿐 아니라 신성성(神聖性)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예를 들면 천황의 신성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神器)를 가지고 이동했고,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는 아마테라스(天照大神)와 동격의 친알(親謁) 형태로 참배를 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효자·열녀 및 고령자에 대한 진휼(賑恤)과 포상·금품 하사 등을 되풀이 하는 직접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⁶²⁾ 또한 민중의 교화를 꾀하는 신도 교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서양의 기독교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필요했지만, 현실적으로 서구 열강과의 조약개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던 메이지정부로서는 언제까지나 기독교 금지령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1873년 2월 24일 기독교 금지령을 해제하고, 동시에 ‘3조의 교칙’⁶³⁾에 의거해 민중 교화정책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⁶⁴⁾

61) 明治文化研究所 編(1967) 『明治文化全集·雜史篇』 第22卷 日本評論社, pp.488-493.

62) 박진우(2004) 앞의 책, p.46.

63) 제1조 경신애국의 취지를 체현할 것. 제2조 천리인도(天理人道)를 밝힐 것. 제3조 천황을 받들어 조정의 뜻을 준수할 것.

64) 安丸良夫(1988) 『宗教と国家』 岩波書店 참조.

1872년 교부성(教部省)의 설치와 함께 ‘3조의 교칙’을 제정하고, 이듬해 2월 9일 민중 교화를 위해 설교의 연제(演題)를 작성한 11겸제(兼題)를 교도직(教導職)에 배부하고, 이튿날인 10일에는 신관(神官)과 승려에 한하지 않고 지역의 유지자에

그러나 현실속의 민중 생활은 개항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불환지폐(不換紙幣)의 남발 등으로 인해 곤궁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천황의 은혜나 권위의 강조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메이지 초기 단계에서는 이처럼 인정 군주상을 강조하고 민중교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정책이 민중의 민속적인 전통과 대립으로 표출되지 않았다. 이는 천황이 도쿄에 행차 할 때 연도 각지에 하달된 제반 준수 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네기시 겐타로(峯岸賢太郎)의 「近世における部落差別の習俗の形態(一)」에는 연도의 정비나 송영 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천황이 통과할 때 도로에 자갈을 깔게 한다든지, 또는 피차별 부락민의 거주지인 에다무라(穢多村)는 대자리나 갈대로 짠 밭 등으로 감추어 문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네기시는 이러한 정예관념(淨穢觀念)에 근거를 둔 차별의식은 근세 일본 사회에서 민간에 널리 침투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민족의식과 표면적인 대립을 드러내지 않은 천황상은 당초부터 권력이 추구하는 천황상과는 거리가 있었고, 메이지정부가 신도 국교화정책의 좌절로 인해 문명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배제시켜 나가게 된다. 박진우는 미야타가 메이지초년의 천황 순행에서 ‘동행’을 천황 = 성(聖)의 이동으로 보고, 이에 대치되는 부정(不淨)을 제거한다는 이른바 행행(行幸)에 따른 성성(聖性)의 이동이라는 관념이 정부 측의 의도로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간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872년 서국(西國) 순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당시의 문서인 児玉愛二郎 「隨行私記」 『皇室篇』을 보면 “행렬 통행로의 수선이나 죽책(竹柵)을 비롯한 불당사문(仏堂寺門) 혹은 부정한 곳을 엄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 메이지초기와는 정반대의 지시를 내리고 있음을

이르기까지 교도직으로 보충했다.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본적인 문명개화의 노선은 몽매한 민중을 천황상을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상황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다. 예를 들면 교화 정책의 특징인 경신애국(敬神愛國)과 천리인도(天理人道)를 통해 문명개화의 양민(良民)을 양성하고자 만든 설교소에는 사람이 거의 모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는 헛바닥을 내밀며 조소하는 자도 있었다. 그 뿐 아니라 교도직(教導職)에 편입된 승려들의 설교내용이 대부분 문명개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法令全書』나 교부성(敎部省)으로부터 하달된 훈유(訓諭)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⁵⁾

문명개화기 이후의 천황상과 민중과의 갈등이나 저항은 신정부의 모든 개화정책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공격하고, 천황을 서양의 기독교에 홀린 ‘당인(唐人)의 부하’라고 표현하는 신정반대(新政反對) 봉기(一揆)를 통해 선명하게 표출된다. 특히 혈세봉기(血稅一揆)와 고취소동(膏取騷動)⁶⁶⁾ 등에서는 신정부 또는 서양인이 사람을 잡아 피를 뽑고 기름을搾다는 유언비어가 민중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며 신속하게 전파됨으로써 민중을 봉기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야스마루는 전통적 질서의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징적으로 표출되었으며,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되어 메이지국가와 민중이 두 개의 적대적인 존재로 명확하게 갈라진다고 보았다.⁶⁷⁾

한편 박진우는 이와 같은 유언비어는 전통적·민속적인 상상력에 의한 심

65) 박진우(2004) 앞의 책, pp.48-50.

66) 신정부는 부국강병, 문명개화를 통해 중앙집권적 형태를 만들기 위해, 판적봉환(版籍奉還)과 폐번치현을 단행하고, 징병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서의 징병이란 ‘세금을 납자들의 피로 받는다’는 혈세(血稅)를 의미하는 말로서, 평민도 군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징병제로 가장 타격을 받은 계층은 무사들이었고, 지방에서는 농사를 지을 노동력을 빼앗김으로 인해 혈세잇기와 고취소동이라는 저항운동이 발생하게 된다.

67) 安丸良夫(1974)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 青木書店, 제5장 참조.

리적 불안과 공포라는 측면을 배제하고서는 그 실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대 전환기의 천황상과 민중의식의 갈등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막말부터 잉태되었던 천황상과 민중의식과의 상위성(相違性)이 드러나면서 민중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는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세 이래 기독교 = 사교(邪教)라는 일관된 의식은 오랜 역사 속에 침전되고 민속적 세계에 뿌리를 내려 왔던 까닭에, 막말 민중의 배외적 양이의식의 근저에는 서양인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양이를 표방하던 정치세력이 메이지유신과 동시에 사교라고 선동해오던 서양인의 문물을 모방하고 민중의 일상생활까지 강요하기에 이르자, 민중의 존재 상실과 서양인에 대한 불안·공포는 한층 더 증폭되었다. 즉 양이라는 공통항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그 공통항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정부의 서구를 모방하는 다양한 정책의 강요로 인해 민중과 천황상과의 상극관계는 더욱 명백하게 표출된 것이다.⁶⁸⁾

이로 인한 민중의 저항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력은 경찰과 군사력을 동원하면서 천황상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극대화시켰다. 그러나 무력 탄압에 의한 대응으로 천황상에 대한 민중의 자발성을 환기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무력만으로 민중의식의 저변에 뿌리내리고 있는 민속적인 관행이나 전통의식이 간단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민중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해 권력이 대응한 천황상의 이데올로기 침투 논리를 박진우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였다.

먼저 천황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강조하였다. 문명개화의 다각적인 정책은 세계 만국이 대치하는 정세에서 민중이 안온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천황의 은혜를 앞세워 이에 대한 민중의 보은(報恩)을 강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세일계의 천황이 지배하는 민족적인 우월감과 결부시켜 충군애국

68) 박진우(2004) 앞의 책, pp.51-53.

적인 국민상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두 번째 문명화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수치를 강조하는 논리를 내세운다. “외국으로부터 일본이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이는 천자 한 분의 치욕이 아니라 일본 전체의 치욕이다”라고 하여 외국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지 않고 국위를 해외에 떨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천황의 의지에 따라 문명개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대 천황상에 대해 순종하는 국민상을 창출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자에게는 조적(朝敵)으로 간주하여 가차없이 무력으로 탄압하는 배제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유신정부는 문명개화정책에 대한 민중의 저항에 보은·수치·조적이라는 세 가지 논리로 대응하였다. 이는 근대 천황상에 필요한 국민상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징적 논리로서, 천황의 절대적인 권위와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유신정부의 논리를 민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논리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 군주로서의 천황상과 동떨어진 현실이 민중 앞에 가로놓여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⁶⁹⁾

이처럼 유신정부는 문명개화기에 드러난 천황상과 민중과의 갈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봉합하려고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교화정책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런 까닭에 근대 천황상이 국민국가 형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명(開明)의 군주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었다. 천황의 권위를 통해 개화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민중과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예로부터 금지되어 왔던 육식을 시식한다든지, 개화의 풍습인 단발을 행하는 것 등이었다.

개화정책 중에는 위의 육식과 단발 이외에도 복장이나 개력(改曆) 등이 있

69) 박진우(2004) 앞의 책, pp.55-58.

었는데, 그 가운데 민중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것은 개혁이었다. 정부는 개혁을 이용하여 민중의 명절과 민속 행사를 금지하였고 이를 황실 중심의 국가 축일로 바꾸면서 민중과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태양력 실시에 대한 민중의 반응은 “겉으로는 신력(新曆)을 걸어놓고 음으로는 구력(舊曆)으로 제반 행사를 행하고 있다”거나, “몽매한 서민들은 조정의 명을 어기고 폐지한 구력을 고수하며, 신력을 멸시하기를 쓰레기와 같이 한다”와 같이 민속적인 관행의 무시에 대한 당혹감과 저항을 나타낸 것이 일반적이었다. 민중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관습의 부활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집착은 국가적인 축일 행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은 천장절 행사 모습을 담은 『日本庶民生活史料集成』 第21卷의 내용과 1875년 11월 19일 『郵便報知新聞』의 보도이다.

① “당일은 서민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하고 만세를 부르며 또한 천황을 공원에서 직접 배견(排見)하는 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특히 기이하다고 할 바는 봉축 흠양(欽仰)한 나머지 현청 부근의 인민들 ……남자는 여장을, 여자는 남장을 하여 기괴한 분장을 하고, 심지어는 기치(旗幟)와 같은 것을 날리면서 군오행렬(軍伍行列)의 모양을 흉내낸다……당일은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관대하여 불문에 붙이는 것과 같다. 우매한 인민 봉축의 뜻을 표하고자 한 나머지 알게 모르게 불손한 모습을 드러냄을 면치 못함이 있으니 이 또한 폐습(弊習)의 하나이다”

② “지난 3일 천장절에는 시중 일반 변화하여 부청(府庁)은 정문과 후문에 서양식의 장식을 세우고 백여 개의 등불을 내걸어 밤에는 등불을 밝힌 모습이 실로 볼 만하였습니다. 현관 위에는 성상(聖上)과 황후의 사진을 걸어두고, 너도 나도 참여하는 자로 붐볐으며, 또한 곳곳의 상가에서는 각종의 물건을 점두에 늘어놓아……구경꾼이 많이 몰렸습니다”⁷⁰⁾

①의 사료는 1874년 고치(高知)현에서의 천장절 모습이고, ②는 1875년

70) 박진우(2004) 앞의 책, p.76.

오사카에서의 천장절 경황을 보도한 내용이다. 국기는 국가적인 행사에서 민중들의 귀속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①의 사료에서는 축일의 변화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식물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하여 박진우는 두 연구자의 주장을 언급하며 국기에 대한 민중인식이 여전히 권력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민속적인 전통에 의거하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예라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종교학자 무라카미 시게요시(村上重良)는 당시 민중에게는 국기가 단순히 경사스런 행사 이상의 의미밖에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타가네 가즈히로(幡鎌一弘)는 나라(奈良)현의 경우 ‘산촌벽지에서는 축일을 자주 오해하여 전통적인 우부스나가미(産神) 축제일 등에 국기를 게양하고 일반의 축일에는 게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지역의 말단 관리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던 부분에서 국기에 대한 민중의 인식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①②의 공통점은 국기게양이나 천황의 사진 등을 이용해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 사료에서 보여준 국기게양이나 천황사진 배견(排見)·경찰관의 감시 등은 근대적 규율에 의해 관리되는 축제일과 민속적인 관행이 혼재된 형태였다.⁷¹⁾ 개혁에 의해 전통적인 명절이 천장절·기원절 등의 황실 중심의 국가 축일로 바뀌었으나, 민중은 여전히 민속적인 관행으로 반응하였던 것이다.⁷²⁾ 그밖에도 1887년 4월의 『群馬新聞』 보도를 통해 1887년 진무천황의 제일(祭日)에 관한 민중의 인식과 민속적인 축제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거리에 네다섯 명의 차부(車夫)들이 모여서 오늘은 천장절이니 한잔

71) 박진우(2004) 앞의 책, pp.76-77, p88.

72)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p.152-156 참조.

마시자고 하니, 그 중 한 사람의 차부가 오늘은 진무천황의 제일(祭日)이다. 천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상(主上)의 탄신일로 11월 13일이다. 자네는 1월 13일의 고메이(孝明)천황 제일도, 2월 11일의 기원절도, 3월 21일의 춘계 황령제도, 9월 23일의 추계 황령제도, 10월 17일의 신상제도 모두 국기만 걸려 있으면 천장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나라 사람이 보면 비웃을 것이다. 이에 다른 차부들이 입을 모아 바보 녀석! 국기가 나오니까 천장절이다. 천장절이니까 현청의 관리가 천조님께 절하는 것이다. 천장절이니까 우리도 한잔 마시며 축하하는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내며 지지 않고 덤벼들었다”

민중은 축일을 경사스럽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민속 축제일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명절이 황실의 축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민중은 민속적인 관행의 반응을 보였고 천황상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활력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개화의 입장인 정부 측에서 볼 때 이러한 민속적 관행은 몽매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통합을 위한 민심 장악이라는 현실적 측면에서는 전통을 무조건 억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야스마루는 이와 같은 국가의 입장과 민속과의 관계에 대하여, 민속적인 것을 억압하지 않으면 문명화와 국민국가의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으며 또한 “민속적인 것을 강제적으로 억압해버리면 국가적인 과제에 부응해야 할 활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천황제 국가의 딜레마가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⁷³⁾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패전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III장에서는 천황과 관련된 민속의례와 전국순행 및 그 외의 여러 국가적 공식문화를 통해 민중의 천황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73) 安丸良夫(1974)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 青木書店 참조.

Ⅲ. 근·현대 천황상에 대한 민중의 인식 형성

1. 민속적 의례로 만들어진 천황상과 민중

메이지시대 이전에 민중이 가지고 있던 천황의 이미지는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라 민간신앙에 뿌리를 두는 경향이 강했다. 민중은 천황이 신성한 강을 만들고, 각종 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주는 등, 이로우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믿어왔다. 그런 까닭으로 천황의 이미지를 민간전승(民間傳承) 중에서 재앙을 막아준다는 고즈(牛頭)천왕(天王)⁷⁴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민중에게는 메이지 이전의 천황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애매했으며, 국가와는 전혀 무관한 기복적인 민간신앙의 신과 혼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메이지정부의 지도자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민중의 열망과, 애매하고 통합되지 않은 국민의 정체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⁷⁵

야스마루는 “의례는 국가를 지탱하는 우주론적인 배경의 소생이라는 성격이 있다. 의례는 항상 하나의 중심을 만들어 내며, 그 중심화된 의례는 점차 특수화되어 간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이 국가가 행하는 의례에 집약적으로 나타나며 퍼포먼스에 의해 실현되는 상징적인 의미로 공동체에

74) 기원정사(祇園精舎)의 수호신으로 교토(京都) 기원사(祇園社)의 제신(祭神).

75) 다카시 후지타니 저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p.30-31.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신비하게 만들어야 거의 종교적 신앙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례의 성격은 천황이라는 권위에 다의적인 의미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중심화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근대 일본은 5개조 서문⁷⁶⁾의 발포식을 시작으로 즉위례·대상제(大嘗祭)·천황의 전국순행·관병식·헌법 발포식 등,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적 통합을 상징하는 의례를 창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사의 제례나 학교 행사 등에서도 국가적인 의례를 수용하는 양식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어진영(御眞影)이 여러 가지로 고안·제작되어 천황의 이미지 형성에 활용되거나, 국가적인 행사에 관한 그림엽서·사진 등이 대량으로 만들어져 근대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⁷⁷⁾

앞에서 언급했듯이 근대 일본의 천황상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등장한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그 내실의 대부분은 새롭게 창출된 전통에 의해 분식(粉飾)된 것이었다. 오랜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황실의 영면성과 신국 일본에 대한 맹신을 비롯하여, 이세신궁이나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에서의 국가적인 제사체계, 그리고 황실의 국화 문장(菊花紋章)과 국기 등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새롭게 창출된 것이었다. 새로운 전통은 문명이라는 국민국가 형성기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일체화되어 강력한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황상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전통과 문명을 초월한 절대적 권위성을 내포하게

76)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저 전해중 訳(1985) 『동양문화사』 을유문화사, p.266.

메이지천황이 1868년 4월 6일에 공포한 선언문으로 일본을 근대화하고 서양의 의회 제도를 도입하는 길을 열었다.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널리 회의를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 얻어낸 공론으로 모든 일을 정해야 한다. ②상하(上下)가 마음을 합쳐 국정을 활발히 수행해야 한다. ③관무(官武)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예로부터 내려오는 누습(陋習)을 타파하고 천황의 공도(公道)를 바탕으로 삼는다. ⑤지식을 세계에서 구하여 황기(皇基)를 크게 진흥시킨다.

77) 다카시 후지타니 저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122, pp.175-188.

된다.⁷⁸⁾

메이지정부가 주도한 근대 천황제에 대한 믿음은 국가신도라는 비종교(非宗教)를 표방한 종교를 통해 지탱되었고, 그 믿음은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천황에 대한 숭배와 국체의 정당성은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내부의 의견 차이나 외부 압력 속에서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전통으로 굳어질 수 있었다. 아울러 천황과 관련된 국가적 축일(祝日)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해서 근대 천황제가 완성되었다.

국가적으로 의례화된 경축일이 처음으로 탄생한 것은 메이지시대 접어들면서부터이다. 메이지정부는 1872년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채택하였고, 이듬해 전통적인 5셋쿠(節句)⁷⁹⁾를 폐지하고 ‘연중 제일(祭日)·축일(祝日) 등의 휴가일’에 관한 포고를 통해 천장절(天長節)·기원절(紀元節)을 비롯한 8개의 휴일을 지정하였다. 지정된 휴일은 대체로 천황 및 황실과 관련되었는데, 그 제정 의도는 민중으로 하여금 이 날을 쉬고 경축하게 함으로써 황통의 계승에 대한 인식을 심으려는 것이었다.

민속적 요소가 처음으로 천황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1868년 9월 20일의 도쿄 행차라고 할 수 있다. 천황은 3,300여 명에 이르는 행렬의 보호를 받으며 행차하는 도중에 연도의 식내사(式内社)에 폐백을 올리고 지역의 고령자에게는 금품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효자·열녀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환자나 극빈자에 대해서도 진휼 등을 시행하였다. 10월 13일 천황은 수천만 민중들의 환영 속에서 도쿄의 황궁으로 입성하여, 무사시국(武蔵国)의 히에신사(日枝神座) 이하 12개 신사를 관폐사(官幣社)로 격상시

78) 박진우(2004) 앞의 책, pp.63-64.

79) 나라시대에 중국에서 전해진 풍습으로, 쌀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의 생활리듬과 조합시킨 명절을 가리킨다. 나나구사노 셋쿠(七草の節句, 1월 7일)·모모노 셋쿠(桃の節句, 3월 3일)·단고(端午, 5월 5일)·다나바타(七夕, 7월 7일)·기쿠노 셋쿠(菊の節句, 9월 9일)이다.

켰다. 또한 오미야(大宮)의 미나토신사(氷川神社)를 진수사(鎮守社)로 삼고 매년 봉폐사(奉幣使)를 보내는 조칙을 내렸으며, 28일에는 천황이 직접 미나토신사에 참배하였다. 11월 4일에는 도쿄의 시민들에게 술과 안주를 하사하였는데, 술통을 실은 화려한 수레가 큰북과 징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동네를 돌았다. 사람들은 그 술을 받기 위해 가업을 멈추고 집집마다 밤낮없이 가무음곡(歌舞音曲)을 행하는 상황이 “마치 신도의 축제 행사와 같았다”고 한다. 이처럼 도쿄에서는 민속적 축제 분위기 속에 천황의 권위가 받아들여지고 있었다.⁸⁰⁾

1868년에 제정된 천장절은 일본 최초의 국경일로서, 천황의 장수를 축원하여 ‘천장’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당시에는 8월 26일이었다. 또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기술되어 있는 진무(神武)천황의 즉위일이 태양력으로 환산하여 1월 29일이었는데, 1874년 기원절로 명명되고 날짜도 2월 11일로 개정되었다. 천장절과 기원절 그리고 정월 초하루가 메이지 3대 축일이었다. 그 후 1878년부터 1927년 사이에 10개 정도의 축일이 제정⁸¹⁾되었는데 대부분 천황과 관련된 것이었다. 메이지천황 탄생일인 11월 3일이 1927년에 축일로 지정되면서 3대 축일은 4대 축일로 바뀌었다.

축일이 민중의 의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892년 소학교에서의 의식규정으로 정한 ‘축일대제일식규정(祝日大祭日式規程)’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 규정에는 천황 및 황후 사진인 어진영(御眞影)에 대한

80) 安丸良夫(2001) 앞의 책, pp.204-205.

81)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35.

①원시제(元始祭, 1월 3일) ②신년연회(1월 5일) ③고메이(孝明)천황제(1월 30일):메이지천황에 이어 다이쇼천황이 등극한 뒤에는 메이지천황제(7월 30일)과 다이쇼천황제(12월 25일)로 대체됨. ④기원절(紀元節, 2월 11일) ⑤춘계 황령제(皇靈祭) ⑥진무천황제(4월 3일) ⑦추계 황령제 ⑧신상제(神嘗祭, 원래 9월 17일이었으나 1897년에 10월 17일로 변경. ⑨천장절(天長節, 11월 3일) ⑩신상제(新嘗祭, 11월 23일). 이처럼 천황과 관련된 새로운 의례나 황실 제사는 대부분이 메이지유신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천황이 직접 거행하는 13개의 의례 중 11개는 역사적 전례가 없다.

경례가 행해졌고, 또 축일에 상응하는 창가 합창·국기제양·기미가요 제창·교육칙어 봉독이 포함된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1880년대부터는 황거(皇居)·이세신궁·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교토 등 천황과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보는 수학여행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과 그와 관련된 공간들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천황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⁸²⁾

일본의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아마테라스는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면서 천상에서 직접 눈을 만들어 곡물을 수확하는 신이기도 하였다. 천황이 즉위하면 즉위식인 대상제⁸³⁾가 행해지는데, 이때 선조신인 아마테라스를 맞이한 다음 그 신령과 천황이 일치되어 새로운 천황령(靈)을 받는다. 이어서 아마테라스와 함께 곡식을 먹는 의례가 연출되고 대상궁(大嘗宮)이라는 좁은 장소로 들어간다. 기본적인 구조는 기도하기 위해 대상궁이라고 하는 좁은 장소로 들어가는 오코모리(御籠り), 그리고 신과 함께 식사를 하는 교쇼쿠(共食)인데, 그때 쌀을 기본으로 하고 생선·야채 등을 먹는다.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 하사하는 몸, 즉 신체(神体)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축제를 일본인은 사계절 내내 각지에서 행하고 있다. 천황가의 대상제는 특수한 의례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민중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축제와 같은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⁸⁴⁾

82) 한영혜(2001) 앞의 책, pp.80-81.

83) 예전에는 「おほにへまつり」, 「おほなめまつり」라고 혼독하였으나, 현재는 「おおなめまつり」, 「だいじょうえ」로 음독하기도 한다.

大日方純夫·山田朗·山田敬男·吉田裕(2011) 宮地正人 監修, 『日本近現代史を読む』 新日本出版社, p.4.

1466년부터 1687년까지는 전란 등으로 인한 조정의 재정난으로 중지되었다가 元禄時代(1688년)에 221년 만에 부활되었다.

84) 일본 민속학의 대표자로 일컬어지는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国男)는 천황과 각 마을에서 행하는 축제나 제사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하였다. 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도 천황의 즉위례인 대상제 안에서 천황령이 계승되어 간다고 하였다. 특히 대상제 안에서도 신들 사이에서 천황이 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천황제의 본질이 있으며 이것이 마을의 축제와 일본인의 민속신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대상제는 일 대에 한번 천황이 즉위할 때 행해지며, 매년 추수 시기에는 신상제(新嘗祭)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천황은 황실 안에 논을 만들어 모내기하고, 풀을 뽑고 추수까지 직접 하는데, 신과 함께 수확한 쌀을 먹는다. 신상제는 쇼와천황이 농민의 수고와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며, 아키히토(明仁)천황도 계승하여 현재까지도 매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⁸⁵⁾

전통적인 인형축제 히나마쓰리(雛祭り)도 국가적·교훈적 의미가 더해져서 새롭게 부활되었다. 『미야코(都) 신문』의 한 논객이 민중의 전통적인 문화를 메이지국가의 공식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들고자 궁리 끝에 그 방법을 제안하였다. 히나마쓰리를 천황의 은혼식에 맞추어 3월 9일로 변경하고 신혼 부부가 이 축제를 위해 천황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이 인형을 잘 간수하고 그 앞에 제물을 올리는 일을 결혼한 여자와 어린이의 의무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히나마쓰리는 충군(忠君)과 부부윤리의 도(道)를 나타내는 국민적 축일로 재포장되었던 것이다.⁸⁶⁾

그 밖에도 메이지시대와 쇼와시대의 축일이 역사적으로 변천해온 과정은 아래의 【표1】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85) 皇室事典編集委員会=監修(2009) 『知っておきたい日本の皇室』 角川文庫, p.122.

86)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233.

【표1】 【축일의 역사적 변천】

	明治時代 (3年頃)	明治時代 (6年頃)	昭和時代 (戦前)	昭和時代 (戦後)	現在
1 月	大正月 (1/1)	削減	削減	元旦(1/1)	元旦(1/1)
		元始祭(1/3) 新年宴会(1/5)	元始祭(1/3) 新年宴会(1/5)	削減 削減	
	小正月 (1/15)	削減 孝明天皇祭 (1/30)	削減	成人の日 (1/15)	成人の日 (1月第②月)
2 月		紀元節(2/11)	紀元節(2/11)	削減	建国記念日 (2/11)
3 月	上巳(3/3)	削減 春季皇霊祭 :春分	春季皇霊祭 :春分	春分の日 :春分	春分の日 :春分(3/20頃)
4 月		神武天皇祭 (4/3)	神武天皇祭 (4/3) 天長節(4/29)	削減 天皇誕生日 (4/29)	昭和の日 (4/29)
5 月	端午(5/5)	削減		こどもの日 (5/5) 憲法記念日 (5/30)	みどりの日 (5/4) こどもの日 (5/5) 憲法記念日 (5/30)
6 月					
7 月	七夕(7/7)	削減 中元・お盆 (7/15)	削減		海の日 (7月第③月)

8 月	八朔(8/1)	削減			
9 月	重陽(9/9)	削減			敬老の日 (9月第③月)
	神嘗祭(9/17) 秋季皇靈祭 :秋分	神嘗祭(9/17) 秋季皇靈祭 :秋分	神嘗祭(9/17) 秋季皇靈祭 :秋分	削減 秋分の日 :秋分	秋分の日 :秋分(9/23頃)
10 月		神嘗祭(10/17)	神嘗祭(10/17)	削減	体育の日 (10月第②月)
11 月	天長節 (11/3)	削減	明治節(11/3)	文化の日 (11/3)	文化の日 (11/3)
		新嘗祭(11/23)	新嘗祭(11/23)	勤労感謝の日 (11/23)	勤労感謝の日 (11/23)
12 月			大正天皇祭 (12/25)	削減	天皇誕生日 (12/23)
日 数	8	11	12	9	15

(日本建設産業職員労働組合協議会の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함)

위 표를 통하여 쇼와시대를 전후로 천황과 관련된 축일은 국민생활과 관련된 축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축일의 수도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국순행(巡幸)으로 만들어진 천황상과 민중

근대 일본의 지배 권력은 전통에 의거한 민속의례나 국가적 공식문화⁸⁷⁾를 의도적으로 창출하여 국민통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전통과 문명의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국가적인 공식문화를 대량으로 창출하였고, 이를 민중의 일상 속에 정착시킴으로써 국민통합의 강화에 나서려고 한 것이다.

새롭게 창출된 국가적 공식문화의 중심에는 천황의 전국순행이 있다. 이를 통해 천황은 민중 앞에 권위적 질서의 존재로서 강렬하게 등장하게 된다. 메이지천황과 쇼와천황의 전국순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행들은 정치적으로 긴박한 시기에 행해졌다⁸⁸⁾라는 특징이 있다. 그런 까닭으로 문명개화기에 행해진 메이지천황의 순행과 전후 쇼와천황의 전국순행은 전혀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과 새롭게 창출되는 천황상도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이 발견된다.

먼저 문명개화기에 보여준 메이지천황의 전국순행에서는 민정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황위를 해외에 알리고자 하였다. 이것은 천황의 최초 순행인 서국순행 포고가 있었던 1872년 5월 7일에 앞서 육군성이 전국순행에 대해

87)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46.

국가적 공식문화는 민중의 일상생활에 쉽게 스며들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일상적 관행과 신체(예를 들면 의복·머리모양·행동거지 등) 등에 새겨질 수 있으며 근래에 발명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망각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일본만이 가진 특이성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국가를 형성하려는 지배엘리트가 국가의 공식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접근 방법은 문화 분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8) 스즈키 마사유키(鈴木正幸) 著 류교열 訳(1998)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p.30.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119.

메이지천황의 장기 순행은 그 절정기인 메이지 즉위 후 11년에서 20년 사이에 집중되었는데, 정부는 천황의 순행을 통해서 사람들, 특히 자유민권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엘리트인 호농(豪農)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이후 이 운동이 더 이상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자 순행은 중단되었다.

제출한 건의⁸⁹⁾와 1872년에서 1874년 사이의 천황순행 및 천도와 관련된 8건의 건백서 그리고 1875년의 홋카이도(北海道) 순행 상주문을 통해 정부와 재야의 천황순행에 대한 의도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우선 8건의 건백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 번째는 개화 = 황화(皇化) = 몽매한 민중의 개화였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대외적인 위기에 대한 국방 강조였으며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한 점이었다. 이는 문명개화를 선도하는 천황상, 대외적 위기에 대응하는 천황상, 카리스마 천황상을 통해 난국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천황순행을 주장하는 논리는 천황이 몸소 전국을 순행하여 몽매한 민중을 개화의 영역으로 이끌면서 대외적 위기에 대처하여 부국강병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박진우는 천황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천황상의 이데올로기를 천황의 직접행동을 통해 실현하려는 시도로 보았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권위를 강조한 연출의 특징을 다음 4가지로 정리하였다.⁹⁰⁾

첫 번째, 전통 카리스마로서의 천황상이다. 순행 시 천황은 황실의 상징인 국화 문장(紋章)과 황기(皇旗), 3종의 신기⁹¹⁾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황조신의 자손으로서 만세일계의 황통을 잇고 있음을 각인시키고자 하였다.⁹²⁾ 즉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서이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 산재한 황실의 능과

89) 박진우(2004) 앞의 책, p.80.

최초의 입안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논리에 의거해 천황순행을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천황이 에도시대와 같이 구대의연하게 존엄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없고, 민심을 통합하고 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천황이 솔선하여 민정을 살피고 황위를 해외에 떨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0) 박진우(2004) 앞의 책, pp.80-90 참조.

91) 安丸良夫(2001) 앞의 책, p.100.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에는 거울은 정직의 근원, 구슬은 자비의 근원, 칼은 지혜의 근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92) 한영혜(2001) 앞의 책, p.82.

고문서를 조사하게 한 것도 전통 카리스마로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친정군주(親政君主)로서의 천황상을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1880년 6월 19일의 『The Japan Weekly Mail』에서 “순행을 행하는데 있어서 천황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국토의 상황을 직접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위엄 있는 지위에 대하여 자각하고 이에 어울리는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하도록 스스로의 자질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⁹³⁾고 하며 친정군주로서의 천황상의 역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세 번째, 문명개화를 선두에서 추진하는 천황상이다. 사사키 스구루(佐々木克)의 「天皇像の形成過程」에는 천황이 단발과 양복 차림으로 민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문명화 이미지를 직접 연출하고, 이후 서양식 군복 착용은 군인 천황의 이미지 정착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네 번째, 인정 군주상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는 메이지유신 초부터 일관되고 있는 점이다. 천황순행 중에 일반 배견자와 연도 지방관 숙지사항 등을 통해 민중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여 천황의 은혜와 자비를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천황의 전국순행 전개 과정에서 연출되는 천황상은 순행의 실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정부는 천황순행에 앞서 백성의 질고(疾苦)를 천황이 친히 살핀다는 명분으로 민중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했다. 하지만 천황의 행렬을 맞이하는 봉영(奉迎)준비 등은 민중에게 갖가지 형태의 부담을 안겨주었다.

1977년 9월 1일의 『郵便報知新聞』에는 물가의 폭등이 보도되었고, 1876년 7월 14일의 『朝野新聞』 논설에서는 연도의 낡은 집을 철거하거나 국기와 등롱을 강제로 불하하는 등의 갖가지 형태가 지역 민중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천황의 순행을 계기로 지역 지배의

93) 宮内庁 編(1968) 『明治天皇紀』 第三 吉川弘文館, p.653.

실적을 올리려는 지방관과 이와 결탁해 지역적인 기반을 확보하려는 중간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실제로 천황순행을 맞이하는 지방관과 지역 중간층의 결탁의 사례는 각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예를 들면 1881년의 순행과 관련해서 『朝野新聞』은 “도호쿠(東北) 어느 현의 군청에서는 봉영준비에 드는 비용을 총 1만 엔으로 보고 백 엔 이상 돈을 내는 사람에게는 유지의 칭호를 준다는 설유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지방관이 봉영준비 과정에서 지역유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중간층도 순행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도 있다. 천황이 머무는 행재소(行在所)의 신축을 위해 기금을 내놓는다거나, 불꽃놀이 준비를 위해 모금을 벌이는 등은 적극적인 간여(干与)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⁹⁴⁾

정부의 입장은 이와 같은 민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부담을 지역 중간층의 자발성으로 바꾸어, 이들을 천황의 권위 아래로 수렴하였다. 그리고 민중의 비용부담 등은 거의 묵인하였고, 이에 대한 신문보도 규제까지 강화하며 민중의 불만을 막는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 민중에 대한 직접 지배보다 지역 지배층을 천황의 말단 범위에 넣어, 이들로 하여금 민중통합을 꾀할 때 기존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 중간층이 더욱 출현하여 천황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이처럼 천황의 순행에 있어 지역의 적극적인 환영체제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은 지방관과 지역 중간층의 행정적 강제를 매개로 한 것이지 민중의 순수한 자발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지역 중간층의 매개가 없는 천황순행을 맞이하는 민중의 자세는 완전히 달랐다. 1876년 7월 5일의 『東京日日新聞』에는 천황의 도호쿠 순행을

94) 박진우(2004) 앞의 책, pp.83-84.

수행했던 신문기자가 「御巡幸の記」라는 제목으로 미야기현(宮城県) 어느 산촌 지역을 지날 때의 민중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논밭 사이를 지날 때에 나와서 배알하는 사람도 군데군데 보이지만 모두 흙
뭍은 발을 밟고랑에 걸치고 풀이나 돌 위에 걸터앉아 발가벗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등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아이의 머리를 끌어내어 젖을 물리는 여인네도
있다. 얼굴도 발도 진흙에 더럽힌 채 낮잠을 자다가 행차가 지나간다고 두들겨
깨우면 눈을 비비며 일어나 마차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

이 사료는 천황순행에 대한 민중의 무관심한 반응으로, 또는 행정적인 강제나 중간적인 매개가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해석되기도 한다.⁹⁵⁾ 하지만 민중의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 정부는 간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국기와 등롱·자갈(砂利)이라는 상징물을 등장시켜 천황행렬의 목적과 강력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리 이치로(堀一郎)나 미야타와 같은 학자들은 일본 민속학 연구에서 귀인(貴人)이 지역에 내방(來訪)할 때, 거리에 자갈(砂利)을 깔고 맞이한다고 하였다. 이때 귀인이 밟고 지나간 자갈을 가지면 가내안전, 오곡풍양하다는 이키가미(生き神)신앙 또는 객인신(客人神)신앙이라는 민속신앙적인 전통이 있다고 하였다.⁹⁶⁾ 국기는 국민통합을 위한 상징물이고, 등롱은 전통적인 축제 분위기 조성의 상징물로 천장절과 같은 축일의 분위기에서 엿볼 수 있었던 듯이 민중에게 호기심과 경사스런 행사를 암시해 주는 상징물이었다.

이와 같이 민속적 요소인 자갈(砂利)과 국기, 등롱은 순행의 의례적인 상징 공간을 연출하는데 있어 필수요소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 자갈의 장식은 민중의 적극적인 자발성을 유도하고 있지만 문명개화를 선두에서 추진하려는 천황상과는 상반되는 요소였다. 그래서 현령(県令)의 지시

95) 박진우(2004) 앞의 책, pp.84-87.

96) 박진우(2004) 앞의 책, p.94.

에 따라 도로에는 자갈을 깔지 않고 천황이 숙박하는 행재소와 칙임관(勅任官) 숙소에만 자갈을 깔게 하였다. 이는 국가적 질서로 편입시키려는 민속적 관행을 금압하려는 태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도 엿볼 수 있다. 국기와 등룡, 도로의 청결함을 상징하는 자갈과 그 위를 행렬하는 천황의 모습은 민중과 일체가 되어 의례화된 상징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다.

붉은 태양을 상징하는 국기나 국화 문장이 들어있는 황기도 메이지초기의 발명품이다. 우선 황기라는 아이디어는 1879년부터 생겨났는데, 1871년 황기의 원형이 된 붉은색 바탕의 금빛 국화가 선보이게 된다. 초기에는 궁정의 의례전문가들이 각종 황실 문장을 실험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민중, 특히 시골 사람들에게 국화 문장이 반드시 황실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메이지천황의 순행 중에 일반민중의 마음속에 천황과 관련된 문장이 무슨 꽃인지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1878년 호쿠리쿠(北陸) 도카이도(東海道)순행을 수행한 『東京日日新聞』 기자 기시다 긴코(岸田吟香)는 니가타(新潟)현에서 행렬이 지나가는 연도의 집 처마에 붉은 매화 등(燈)이 걸려 있었다고 썼다. 그는 동네 사람에게 붉은 매화가 에치고(越後)를 의미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아니라 천황의 문장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일반민중에게 천황이 태양의 후손임을 설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붉은 태양은 국화보다는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근대 이전 대다수 서민에게 국가 또는 황실을 독점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았다. 1854년 사쓰마번의 영주 시마즈 나리아키라(島津斉彬)가 올린 청원에서 일본 선박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흰 천에 태양이 그려진 깃발을 달아야 한다고 막부가 결정할 때까지 국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1870년이 되어서야 메이지정부도 에도 말기의 선례에 따라 일본 선박에 국기게양을 의무화하였던 것이다. 이후 민중들은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기 시작했으나 이 관행이 뿌리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렸으며, 민중에게 있어서 국기문장은 에도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불분명하였다.

이와 같은 상징물들은 황실의 상징과 의미에 대하여 민중과의 합의는 없었지만 새 통치자에 대한 관심과 천황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다시 말해 천황의 순행과 그에 이용된 상징물들은 어떤 특정한 신화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기보다 단지 위용과 광채 때문에 권력을 창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76년 후쿠시마(福島)현 순행 때에는 휘황찬란한 복장의 마부나 네 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천황의 마차, 그 마차에는 검정 옷칠이 되어 있었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박의 천황 문장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1881년의 후쿠시마현 순행 때에도 다테(伊達)를 지날 때 천황의 시종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검새(劍璽:구사나기 검과 야사카니 곡옥)”가 들어있는 네모난 꾸러미를 들고 있었고, 천황의 마차는 검정 옷칠에 금박 문양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중은 통치 이데올로기보다는 현란함에, 의례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이끌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⁹⁷⁾ 국가의 질서를 상징하는 국기와 황실기 그리고 민속적인 요소인 자갈에 의해 연출되고 있는 점에서 천황순행을 맞이하는 환영체제의 중요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⁹⁸⁾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질서와 민속적 요소의 혼합에 의해 연출된 전국 순행에서 보여진 천황상이 민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이로가와 다이기치(色川大吉)는 천황의 순행에 대한 민중의 반응을 무관심형·신앙형·축제형·타산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순행에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신앙형과 축제형으로 보았고, 무관심형은 지역의 행정적인 지도와 강제가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반드시 천황에 무관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타산

97)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p.81-84.

98) 박진우(2004) 앞의 책, pp.87-90.

형이란 지역 지배의 실적을 올리려는 지방관이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지역의 유지·중간층 등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신앙형과 축제형은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민속적인 반응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중의 반응은 국가 권력이 요구하는 천황상에 어울리는 근대적인 의례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다음은 1878년 9월 17일 『新瀉新聞』과 1880년 7월 7일 『郵便報知新聞』의 보도를 바탕으로 한 민중의 무질서한 반응과 배견의 예⁹⁹⁾는 민중의 민속적인 반응이 근대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민중의 무질서한 반응을 제지하고 배견의 예를 정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1878년 호쿠리쿠(北陸)순행에서 “나가노(長野)현을 지나가기까지는 배견하는 인민들이 경례할 줄도 모르고 실례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입례하는 것이 예의라고 잘못 생각해(입례는 예복 착용 시 한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순사도 있었다”

② “그다지 넓지 않은 제방에 배견인이 좌우로 군집하여 순사가 제지해도 이를 듣지 않고 있더니 갑자기 천황의 깃발이 가까이 오늘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러서다가 독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자도 많았다”¹⁰⁰⁾

99)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283.

천황의 1876년 순행 때 「(천황을)바라보는 일반요령」이라는 문서에 부절적인 복장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알몸이거나 허리춤에 살이 보이거나 망측한 물골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다음을 숙지할 것.” 일반요령에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벼락 치듯 외치지 말 것. 모두 완전 정숙할 것”이라 쓰여 있다. 또한 내무성 총무과는 모든 촌장, 정장(町長), 구장에게 통보하여 순행 길 연변에 나올 사람이 적절한 환영 방식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말이나 마차에서 내릴 것. 모자를 벗고 길가에서 차렷 자세로 어가를 기다릴 것. 두 손을 허벅지에 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천황을 맞을 것. 길가에 앉지 말 것.”을 지시했다.

100) 박진우(2004) 앞의 책, pp.92-93.

위와 같은 사례는 민중의 무질서한 반응이 천황의 존엄을 해치거나 천황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었고, 천황의 인자함을 선전해야 하는 국민통합의 한 과정으로 보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천황 순행을 맞이하는 일반적인 모습에서 거리에 자갈을 깔고, 불꽃놀이나 토속적인 무용을 펼쳐 보이는 것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무질서 속의 민중의 반응에 민속적 신앙 요소나 전통이 드러나고 마을의 전통적인 축제분위기와 적절히 결합하면서 민중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호쿠 순행의 스가가와(須賀川)부근에서는 “역 앞은 말할 것도 없고 논에도 밭에도 숲에도 자리가 비좁았으며 배견인이 군집하여 떡을 파는 사람, 만두를 파는 사람, 술을 파는 사람까지도 출장을 와서 번잡하기가 마치 수호신의 제례와 비슷했다”¹⁰¹⁾고 하는 축제 분위기를 보였다. 1872년부터 1881년에 걸쳐 전개되었던 천황의 대대적인 지방순행에서는 민중들이 천황이 먹고 남긴 음식이나 앉은 자리 방석, 옥좌 아래의 흙이나 삼나무 잎으로 만든 장식 등을 제액 제거·병 치유·오곡풍양의 주물(呪物)로 간주하고, 이를 얻으려 서로 다투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1881년 야마가타(山形)현 사카타(酒田)의 순행에서는 와타나베 사쿠사에몬(渡辺作左衛門) 집에 열흘간 10만 명이 들이닥쳐 “옥좌의 방석을 손으로 비빈 후 자기 몸을 비비면 평생 무병장수한다고 기뻐했다. 여자는 기둥을 만지고 자신의 몸을 비비면 아이를 쉽게 낳는다”하는 현상까지 보였다. 1880년 기노시타 나오에(木下尚江)가 쓴 소설 『참회(懺悔)』에서도 작가가 직접 관찰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마쓰모토 [松本]의 노인들은) “천황은 신통력을 지닌 살아있는 신”이라는

101) 明治文化研究所編 『明治文化全集・皇室篇』 第1卷, p.353.

오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천황을 올려다보면 눈이 뭉개진다고 믿었다…… 순행이 끝나 사람들의 왕래가 허용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길 양쪽에서 앞다투어 뛰어나왔다. 그들은 서로 떠밀고 진흙탕에 옷이 망가지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리법석을 피웠다. 그들이 광란한 까닭은 말발굽과 마차바퀴에 튕겨 나온 흙투성이 돌멩이 때문이었다. 당시 천자님(天子様)이 밟고 지나간 돌멩이가 있으면 집안에 복락(福樂)과 풍년이 찾아온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¹⁰²⁾

이와 같은 사례는 천황이 현세이익을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신(生き神)으로서의 등장을 의미하며 민속적인 종교 관념에 어울리는 현상이었다.¹⁰³⁾

1881년 도치키(栃木)현의 순행 상황을 전하는 8월 12일의 『東京横浜毎日新聞』 보도에서도 “이 부근부터 길가의 민가에서는 집집마다 신주(神酒)와 떡을 바쳐 천황의 마차를 맞이하는 모습이 마치 마을 신사의 제전(祭典)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여 순행을 맞이하는 지역의 민속신앙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천황순행에 관한 서적이나 천황의 순행을 소재로 한 그림이 널리 유포되기도 하였다. 이는 민중의 천황상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민중이 천황상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더불어 상업이 번창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민속신앙적인 요소의 행사는 정부의 관리 하에 두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었다. 천황순행에 관한 서적 판매에 대한 정부 규제도 민중이 자발적인 호기심에 의하여 능동적인 천황을 인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앞서 말한 배건의 예를 민중에게 적극적으로 관철하지 않았던 점도 민중의 민속적인 반응 속에 천황에 대한 존숭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묵인하면서도 민중이 능동적으로 천황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인하지 않았다. 이는 천황상을 중심으로 민중을 통합해 가는

102)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p.84-85.

103) 安丸良夫(2001) 앞의 책, pp.230-231.

과정에서 문명적인 합리성을 치장하고 천황의 인정을 내세우면서도 어디까지나 전통 카리스마로서의 천황상이라는 질서 아래 재편성하는 것이며,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⁴⁾

메이지천황의 대규모 순행¹⁰⁵⁾은 1868년 봄 교토에서 오사카, 교토에서 도쿄로의 순행을 시작으로 메이지 초기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천황의 순행은 북쪽의 홋카이도부터 남쪽의 규슈(九州)남단까지 이어졌다. 이는 천황이 지방 구석구석을 순회하며 일본인이 될 사람들이 그를 구경하는 의례의 한 양식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다 1880년 이후부터는 메이지체제의 공적인 의례로서 근대화되고 성숙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황실의 패전트는 천황의 전국순행 이외에도 메이지헌법 발포식이나 개선관병식처럼 정치적 성격의 행사는 물론이고 황실 장례식·황실 결혼식·황실 결혼기념일이 포함되기도 하였다.¹⁰⁶⁾

후지타니는 메이지천황의 전국순행 의미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근대에서 공적의례에 사용된 다양한 표상과 기호를 처음으로 전파했다는 단순한 의미가 있다.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국기와 등룡 등은 천황이 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등장하였다. 때로는 황실의 표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황실의 국화 문장은 사람들이 언제든 순행을 떠올리는 확실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로는 천황의 순행에서 보여준 찬란함·금빛·색깔·장엄함 등을 통해 천황이 사회의 중심이라는 점을 과시하였다. 천황의 순행은 공간 통합의 의례이며, 군주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한 영토의 공간적 일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천황의 순행을 떠올리는 이미지와 공간 통합의 의례를 통해서 천황의 능력을 현실화하고 이를 믿게 하는 최초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¹⁰⁷⁾

104) 박진우(2004) 앞의 책, pp.95-97.

105) 본 논문 【표2】 참조.

106)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p.36-37.

【표2】 메이지천황의 전국순행 연차 및 횟수

연차	횟수	5년간 소계	연차	횟수	5년간 소계
1868(메이지1)	4	10(1)	1893(메이지26)	2(1)	8(3)
1869	1		1894	1(1)	
1870	1		1894~1895	1	
1871	1		1896	3(1)	
1872★	3(1)		1897	1	
1873	5(1)	11(1)	1898	1	9(3)
1874	1		1899	2(1)	
1875	2		1900	4(2)	
1876★	2		1901	1	
1877	1		1902	1	
1878★	2(1)	18(6)	1903	3(1)	9(4)
1879	1		1904	1	
1880★	1		1905	2(1)	
1881★	9(3)		1906	1(1)	
1882	5(2)		1907	2(1)	
1883	3(2)	14(10)	1908	1	6(2)
1884	4(3)		1909	1	
1885★	2(1)		1910	2(1)	
1886	3(3)		1911	1	
1887	2(1)		1912	1(1)	
1888	2(2)	12(7)	합계	97(37)	97(37)
1889	1(1)		주)★표시는 6대 순행 ¹⁰⁸⁾ . ()안의 숫자는 당일 순행을 표시함. 尾佐竹猛著 「明治行幸年表」에 따름. 단,1904년은 「内務省史」 제3권 「地方行幸一覽」에서 추가함.		
1890	3(1)				
1891	4(2)				
1892	2(1)				

(인터넷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함)

【표2】는 메이지천황의 전국순행 연차를 나타낸 것이다. 메이지천황의 전국순행은 메이지 20년을 전후해서 급격히 줄어들며 종결하게 된다. 다양한 의미가 있고 화려했던 천황의 공적의례인 전국순행이 종결된 이유에 대

107)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p.85-86.

108) 천황의 장기간의 대규모 원거리 순행.

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천황의 전국순행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근대 천황상 형성의 기반이 갖추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적 문화행사의 공적인 장소였던 교토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적의례의 프레임(frame)이 준비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메이지천황의 전국순행은 막을 내리고 천황과 민중의 직접적 접촉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천황의 장엄한 패전트의 출발점인 전국순행은 국가의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메이지 후반부터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패전트가 생겨나게 된다.

다양한 국가적 공식문화가 등장하면서 잠시 그 모습을 감추었던 천황의 전국순행은 패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재등장하게 된다. 패전 이후 일본의 천황제는 상징천황제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쇼와천황의 인간선언이었다. 외면적으로는 인격(人格)을 가장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일본인의 잠재의식 속에 국체(国体)관념으로 자리 잡으려는 신격(神格)의 연속성을 감추고 있었다. 쇼와천황이 자신의 입으로 신격을 부정하면서 변모된 위상을 알리기 위해 행한 것은 메이지천황이 절대 권력과 권위를 가진 존재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전국순행이었다. 순행의 진정한 목적은 상징천황제에 대한 천황숭배의 국민의식 형성에 있었다. 우선 상징천황에 어울리게 연출된 전후 쇼와천황의 전국순행 복장은 메이지천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전의 군복 차림의 백마를 탄 대원수(大元帥)의 모습이 아니라 양복에 중절모라는 서민적 풍모로 변신하게 된다.¹⁰⁹⁾ 뿐만 아니라 천황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모자를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으로 일본인들을 감격시키며, 여전히

109) 손안나(2010) 앞의 논문, p.10.

전후 쇼와천황의 표상이 곧바로 양복차림에 중절모를 쓴 신사의 모습으로 발현된 것이 아니다. 점령 하에서 육해군성이 아직 존속하고 있었으나 8월 25일의 칙유에 의해 제국 육해군 군대가 소멸하여 군복을 걸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천황복'이 제정된 것이다.

식지 않은 천황숭배의 국민적 열기를 체험하게 된다.¹¹⁰⁾

다음은 인간선언 이후 국민 앞에 나선 쇼와천황을 일본인들은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 1946년 3월 3일의 『読売新聞』 「인간으로서의 천황」이라는 제목의 독자 투고 「외침(さけび)」의 일부분이다.

“먼저 천황이 요코하마(横浜)의 공장에 갔을 때, 한 노동자가 천황이 말을 걸자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하는 일이 각 신문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우라가(浦賀)에 천황이 갔을 때의 이야기를 팔라우에서 돌아와 수용소에 있는 한 병사에게서 들었다”...(중략)··· “이 병사는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천황이 온다고 하기에 수용소에 일부러 2~3일을 붙잡혀 있었다”...(중략)··· “천황도 인간인 것은 그 자신 스스로도 인정했지만, 아직 천황을 신처럼 생각하고, 인민도 예전처럼 신(臣)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순행 기사에서도 보였다”

이 투고를 보면 국체 교육 특히 ‘국체의 본의(国体の本義)¹¹¹⁾와 ‘신민의 도(臣民の道)¹¹²⁾로 상징되는 한층 강화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받아 온 일본인들에게 천황이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¹¹³⁾

한편, 쇼와천황은 메이지천황이 지방을 순행했던 메이지초기와 마찬가지로 불타버린 수도 도쿄를 비롯하여 두메산골까지 여러 차례 순행을 이어갔다. 인간선언을 한 지 7주 만인 1946년 2월부터 1947년 11월까지 무려 15번의 순행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1954년 홋카이도 방문 때까지 순행은 계속되

110) 정창석(2006) 앞의 논문, p.452.

111) 쇼와시대인 1937년 문부성에서 발간하였는데 서양이 계몽(啓蒙)주의와 개인주의에 기원을 두는데 반하여, 일본은 상무(尙武)정신과 헌신(獻身)정신으로 표현하고, 국체를 바탕으로 서양의 문화를 채택하고 승화시켜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112) 1941년 문부성이 발간하여 세계정세에서 일본의 역할과 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혔는데 이는 도의(道義)에 의한 세계신질서(世界新秩序)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113) 손안나(2010) 앞의 논문, p.19.

었다. 그 사이 1947년 말부터 천황의 순행은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천황에 대한 민중의 열렬한 호응을 경계하며 전면 중지가 결정되는데 【표3】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949년 5월에 재개된다. 이 표를 통하여 쇼와천황은 일본의 주요 지방을 모두 순행하였지만 전쟁 중 희생이 가장 컸던 오키나와(沖繩)는 순행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¹¹⁴⁾

메이지천황과 쇼와천황의 대대적인 전국순행을 비교해보면 메이지천황의 순행은 무력항쟁과 정치투쟁을 특징으로 하는 신생 군주제의 위기 시대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민중에게 천황의 존재를 인지시키고 실질적인 권력 행사자로서 천황의 권위를 확립하는 커다란 과정의 일환이었다. 즉 그의 통치를 특징짓는 견고하고 공적인 군신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반면 쇼와천황의 전국순행은 치유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통 받는 민중을 위로하고, 국민의 복구 노력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이다. 엄격했던 천황과 민중의 관계를 유연한 것으로 바꾸어 민중에게 인간적이며 자애로운 모습으로 더 친밀하게 다가가 민주화된 군주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¹¹⁵⁾ 비록 두 천황의 전국순행이 목적과 역사적 의미는 달랐지만 민중이 천황을 적극적으로 인식함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4)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297.

115) 하버트 빅스 著 오현숙 訳(2010) 앞의 책, p.688.

【표3】 전후 쇼와천황의 전국순행 일람

년	월일	총칭	도도부현
1946년	2월19일~20일	神奈川	神奈川
	2월28일~3월1일	東京	東京
	3월25일	埼玉	埼玉
	3월28일	群馬	群馬
	6월6일~7일	千葉	千葉
	6월17일~18일	静岡	静岡
	10월21일~26일	愛知, 岐阜	愛知,岐阜
	11월18일~19일	茨城	茨城
1947년	6월5일~14일	関西①	京都,大阪,兵庫, 和歌山
	8월5일~19일	東北	福島,宮城,岩手, 青森,秋田,山形
	9월4일~8일	栃木	栃木
	10월7일~15일	甲信超	新潟,長野,山梨
	10월23일~11월2일	北陸	福井,石川,富山, 岐阜(高山)
	11월27일~12월11일	中国	鳥取,島根,山口, 広島,岡山
1949년	5월19일~6월10일	九州	福岡,佐賀,長崎, 熊本,鹿児島,宮崎, 大分
1950년	3월13일~3월31일	四国	香川,愛媛,高知, 徳島,兵庫(淡路島)
1951년	11월12일~25일	関西②	京都,滋賀,奈良, 三重
1954년	8월6일~23일	北海道	北海道

(인터넷 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함)

3. 국가적 공식문화 속의 민중

그러나 순행 이외에도 천황이 민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국가적 행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메이지 후반부터 국제 양식의 새로운 공적의례가 모방과 창조를 통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국가적 행사도 천황의 전국순행과 마찬가지로 메이지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메이지헌법 발포식(1889), 천황·황후의 은혼식(1894) 그리고 황태자의 결혼식(1900) 행렬 등이 국가적 행사에 포함되었다. 이후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국가적인 승전을 기념하는 거창한 국가 의례로 치뤄진 관병식이나 관함식도 국가적 행사로 진행되며 천황과 민중이 함께 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적의례를 통한 천황의 인간적이고 사회연루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은 민중과 황실 사이의 친애(親愛)·친밀(親密)·친절의 함양으로 표현되었다. 만세(萬歲)가 황실의 각종 패전트와 함께 개발되었고, 황실과 민중 사이의 친근감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889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천황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랐지만 메이지헌법 발포 때부터 일본의 만세가 민간에 널리 통용되게 되었다.¹¹⁶⁾

황실의 결혼식이나 결혼기념일 행사 등도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거리를 좁히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천황이 일본국민에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행사의 효과는 민중이 천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천황의 응시 앞에 유순한 대상인 민중과 장엄한 광경,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폭발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황실 패전트였다. 특히 관함식이나 관병식을 보기 위해 모인 무수한 인파나 관함식에서 전시되는 전함들과 광장에 진열해 놓은 무기들, 그리고 국력을 과시한 놀라운

116)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譯(2003) 앞의 책, pp.212-213.

쇼는 물론이고 군인들의 행진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공식문화는 천황의 전국순행과는 달리 언론에서 종종 묘사하듯이, 귀천의 구별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대중이 참가하는 진정한 국민적 성찬식으로 포장되었다.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국가적 상징을 동시에 인식하는 집단적 행위에 의해 개개인이 시공을 초월한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설령 사람들이 국가의례에서 저마다 다른 의미를 찾고 있었다거나 공식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상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국민적 성찬식에 동시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¹¹⁷⁾

메이지헌법 발포식은 한낱한시에 각 지방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같은 행사를 치른 일본 최초의 근대적 국가의례였다. 그런 이유로 궁성 안만큼이나 궁성 밖에서도 다양하고 치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야마모토 노부요시(山本信良)와 곤노 도시히코(今野敏彦)는 메이지헌법 발포를 기념하는 각 학교의 경축 행사가 국민의례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였다. 국민의례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천황과 국가를 찬양하고, ②의례가 각 지역의 신사에서 진행되었고, ③음악과 풍선이 행사에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④의례에는 군대식 훈련이 포함되었고, ⑤관리들이 행사에 참석하고 아이들은 먹을 것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슷한 방식이 메이지 후기의 대중적인 국가행사에 동원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전후 불특정 다수의 민중이 국민적 성찬식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국가적 패전트는 1946년 전후 부흥과 재건의 사기 고양을 위해 시작된 국민체육대회나 1948년 시작된 황거 앞 광장에서 치러지는 신년참하(新年参賀), 천황탄생일에 시행되는 일반참하(一般参賀) 등이 있다.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민중과 천황이 서로를 인식하며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117)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173, p.209, pp.253-254.

수 있는 국가적 공식문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례가 행해지는 동안 동시성의 의식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메이지 말기에 전국적 교통·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기술의 발전은 기호·이미지·사람들의 급속한 순환을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인쇄 자본주의와 전체적인 미디어의 발달도 천황의 패전트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국민적 동시성을 광범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¹⁸⁾

그러나 국가적 공식문화에 참여하는 민중들이 그 문화에 대한 의미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메이지헌법 발포식을 앞두고 도쿄 전체가 “흥분에 휩싸여 있었지만……우스운 것은 헌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당시 도쿄에 있던 외국인 에르빈 벨츠(Erwin von Balz)는 자신의 일기에 썼다. 이 외에도 일본의 언론인들도 일반 민중의 무지에 대한 불평이 이어졌다. 여러 축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헌법님(憲法様)라는 지장보살을 숭배하는 천황이 그 신을 위해 제사를 준비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헌법제(憲法祭)가 단지 “산노 축제(山王祭)¹¹⁹⁾의 문명·개화된 형태”로 믿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일반민중에게 있어서 국가적 공식문화의 참여는 여전히 그들에게 친숙한 축제의 새로운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¹²⁰⁾

그 이후 원유회(園遊會)나 식수제(植樹祭)가 쇼와시대부터 계승되어 왔다. 아키히토천황 즉위 이후에는 ‘열린 황실’을 표방하면서 어린이 날(こどもの日)·경로의 날(敬老の日) 등을 통해 국민과의 접촉 기회를 꾸준히 늘려 나가

118)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117, p.254, p.259.

119)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히에<日吉>신사에서 매년 음력 6월 15일에 개최하는 축제.

120)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p.276-277.

며 몸소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이전의 ‘달린 황실’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천황상을 심어주기 위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²¹⁾

그렇다면 근·현대를 이어오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패전트를 통해 새로운 변모를 거듭해 온 천황상에 대하여 민중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21) 박진우(2001) 「現代日本社会와 象徴天皇制」 『일본역사연구』 13 일본사학회.

IV. 근·현대 천황상에 대한 민중의 인식 변화

1. 근대 이후부터 전전(戰前)까지의 민중인식

메이지 원년이나 메이지 2년에 나타나는 니시키에(錦絵) 안에는 천황에 대한 민중의 인식이 매우 리얼하게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니시키에 안에 아이를 붙잡는 놀이인 술래잡기의 형태로 천황이 묘사되어 있다. 천황은 아이를 보고 있는 여자의 등에 업힌 갓난아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작은 소년 승려로 그려져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천황의 이미지는 조슈나 사쓰마에 의해 조정되는 인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중의 인식에 대해 야스마루는 아주 리얼한 견해라고 보고 있으며 근대 사회가 좀 더 발전한 단계에서도 민중들 사이에는 그러한 천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천황숭배 관념이 메이지유신과 함께 발전되었다고도 보고 있다.¹²²⁾

이후 메이지헌법이 공포되어 의회가 열리기 직전인 1890년 3월, 우에노(上野)공원에서 내국권업박람회(内国勸業博覽會)가 열렸다. 그 개최식 광경을 통해 당시 천황에 대한 민중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수백 명의 출품인들은, 나막신을 쿵쿵거리며 그곳이 금연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뼈끔뼈끔 담배를 피워대고, 소매 안에서 군고구마·빵 등을

122) 安丸良夫(1991)의 7인 「일본의 근대 천황제와 민중의식」 일본학지 일본문화연구소 주최 초청강연회, pp.151-187 참조.

꺼내 우적우적 먹어댄다. 천황이 모습을 드러내어도 모자를 벗지도 않고, 무부관(武部官)이 큰 소리로 두 번 세 번 「모자를 벗으세요, 모자를 벗으세요」라고 재촉하니 겨우 모자를 벗었다. 천황의 참석이라는 가장 정숙하고 엄중해야 할 장소에서, 들판 연극이나 연예장 구경을 나온 듯 단정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어이없는 상황...¹²³⁾

박람회에는 각 현의 대표로 선발되어 개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이었는데, 참석한 사람들은 연극을 구경하는 기분으로 천황을 맞이하였고 메이지 말에도 여전히 천황은 「구경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1년에 육군 대연습이 행해진 구루메(久留米)에서 있었던 일이다. 경비가 삼엄하고 거의 계엄령 수준으로 연도에 봉영자(奉迎者)가 적었던 것이 천황의 눈에 띄게 되어 경비를 완화해 「농공상(農工商)의 남녀노소가 평상복을 입은 채로 연도에 서서 천황이 탄 마차 가까이에서 절을 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온 개미 같이 구루메에 운집한 사람들이 매일 수만 명...”¹²⁴⁾

이처럼 천황은 메이지 말까지 신의 의미보다는 슈퍼스타로서 일생에 한번 있을 만한 체험을 위한 「구경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현인신으로서의 천황」이라는 이미지가 침투한 것은 메이지시대가 아니라 쇼와(昭和) 특히 1930년대가 되면서부터라는 것이 최근의 연구 기조라고 보고 있다.¹²⁵⁾

다음은 전전과 전시(戰時)에 있어서 민중에게 보여진 천황상의 모습이 전후 상징천황제 이후에 달라진 천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한 예이다.

123) 『朝野新聞』(1890. 3.27).

124) 『福岡日日新聞』(1911. 2.26).

125) 牧原憲夫(2005) 앞의 논문.

오토모 요시에(大友淑江)는 1928년 12월 15일 황거 앞 광장에서 있었던 대규모 의례에 참가하기 위해 가와사키(川崎)고등여학교에서 선발된 여학생이었다. 이 행사는 11월 쇼와천황의 등극과 함께 계획된 많은 행사 중 하나였는데, 천황이 여러 지역에서 선발된 8만여 학생들을 천황이 사열할 때였다. 오토모는 “높디높은 단 위에 서 있는 카키색 군복 차림의 경외하는 인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압도당했던 것 못지않게 자신을 보호해주며 자애롭다는 느낌에 압도되었다고 한다.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며 행진하고 노래하며 기다리는 학생들을 본 천황이 그들의 고통에 애처로워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천황은 폭우를 막는 차양을 치우고 외투를 걸치는 것도 사양한 채 학생들과 고통을 나누었다. 여기에서 오토모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가부장의 엄격하고 남성적인 시선이 아닌 희생적이고 거의 모성애적인 배려를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진정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 해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쇼와천황은 육군 시무식과 군 작전·국경일·관병식에는 백마를 탄 모습 등으로 참여해 카리스마적 권위도 함께 보여 주고 있었다. 이렇게 쇼와천황은 자애롭고 관용적이며 모두를 보듬는 보호자 같은 자기희생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절대적 권력을 가진 카리스마적인 권위의 모습도 친숙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쇼와천황은 전후(戰後) 일반민중 앞에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쇼와천황에 대한 시선과 권력에 생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식행사가 바로 신년일반참하와 천황의 탄생일에 행해지는 일반참하였다. 이전과 같은 우뚝 솟은 위치에서 더 이상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주체나 행위자로서가 아닌 베란다에서 손을 흔들며 몇 마디 덕담만을 읊조리는 천황을 보게 된 것이다.¹²⁶⁾

126)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2003) 앞의 책, pp.301-304참조.

2. 전후(戰後) 상징천황제(象徵天皇制)에 대한 민중인식

쇼와천황의 재위기간 약 64년간을 통하여 전반기는 절대적인 군주이자 현인신으로 외경의 대상으로 군림하였다면 후반기인 전후 40여 년간은 신격은 사라지고 인격만 남은 채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카리스마성은 상실하지 않았다.

쇼와천황은 전후인 1949년 중단되었던 전국순행을 규슈 순행을 시작으로 재개(표3 참조)하였고, 순행 중에 현청과 공립학교 및 대학, 고아원, 제지공장, 화학공장, 섬유공장 등을 방문하였다. 순행 시 민중의 반응은 늘 그랬듯이 각양각색이었다. 대부분은 천황을 박애정신의 화신·자애로운 사람·저명인사로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그러나 소수파는 천황을 아직까지 거룩한 존재·현인신·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을 강하게 규제하는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천황이 다가가자 만세를 부르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긴장하거나 몸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린 사람도 있었다. 감정적인 마비 상태가 뒤따랐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신민의식이 그대로 신체에 표현된 이러한 현상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회상에 되풀이해서 등장하였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주제는 천황과 함께 혹독한 고난을 겪으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이미지 조작을 해도 천황의 전쟁책임은 불식할 수 없으며 혹은 천황에 대한 무관심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¹²⁷⁾ 이렇게 전후에는 다양한 시선으로 사회의 기둥이었던 천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캐롤 글럭(Carol Gluck)¹²⁸⁾의 『근대 일본의 신화(Japan's Modern

127) 하버트 빅스 著 오현숙 訳(2010) 앞의 책, pp.705-706.

128) 캐롤 글럭은 일본의 근대사를 전공한 미국의 역사학자이다.

Myths)』에서는 근대 전환기를 기점으로 지배계층에 의해 재구성된 천황제의 정통성은 패전을 경계로 하여 정통성 관념과 인간들의 경험 사이에서 소멸하면서 긴장과 균열이 심화되어 간다고 하였다. 패전의 결과로 노골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억압적이었던 정통성 관념은 급속하게 모습을 감추게 되지만, 일본의 사회전체나 개인으로서의 경제적 이익이나 진보를 추구하는 태도는 전전과 전후를 통하여 오히려 커다란 연속성이 보인다고 정리하였다. 이는 생활자로서의 민중이 국가의 논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흘려보내고, 생활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대담하게 지켜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황제의 민중지배가 표면적이고 무력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생활 자체는 지배와는 별도의 차원을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천황에게 권위 중추를 두고 국민 국가로서의 통합과 발전을 꾀한다는 지상 과제에 근대 일본이 포섭되고 있었던 것이다.¹²⁹⁾

자연스럽게 시대적 흐름의 이면에서 민중은 서서히 상징천황제를 일상화하고 내면화하면서 천황제의 연속성에 대해 ‘자발적 복종’을 의식화하게 된다. 크고 작은 일상생활의 이상적 형태의 정점에 천황과 천황가를 상징하여 천황을 이상화(理想化)하고 동일시하였다.

“쇼와천황의 죽음이 임박하여 기장(記帳: 1988년 9월 22일부터 쇼와천황의 완쾌를 기원하는 일본인을 위해 천황궁 앞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설치된 기장소를 찾아가 이름을 적는 것)을 위해 찾아온 젊은이에게 쇼와천황은 어떤 이미지인가 물으면, ‘일본의 아버지’라는 대답이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되 돌아온다. 천황은 일본의 가부장(家父長)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친근하다, 흐뭇하다, 노고를 위로하고 싶다는 등의 고정된 수식어가 붙은 천황 가정의 초상은 ‘일역 총중류(總中流)’의식에 젖어 있는 일본인 가정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천황의 ‘성가족(聖家族)’이 사회적인 위계질서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것이다. 천황가의 매너, 옷차림과 풍속이 자주 여성잡지 등에 오르기도 한다. 천황가와 결혼하는 여자는

129) 安丸良夫(2001) 앞의 책, pp.272-273.

구극(究極)의 영양(令嬢)이고 그 다음이 진짜 영양층(令嬢層), 그 아래가 노력하면 영양이 될 수 있는 층, 또 그 밑에 사이버 영양이라는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다”¹³⁰⁾

“전쟁체험 세대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 특징적인 것은 천황과 더불어 인생을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기장소(記帳所)에 온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활사의 경험 곧 전쟁 중과 전후 체험의 요소요소에 천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쇼와천황에 대해서는 ‘가부장적(家父長的)인 위대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다.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것은 한편으로 관념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라는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거기에 자신의 아버지를 중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위대한’이라는 말 속에는 성스러운 사람 혹은 살아있는 신이라는 측면이 있어 종교적인 권위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후의 천황에 대해서는 성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 무구(無垢)한 사람, 사심(私心)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다. 같이 있으면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식으로 정서적인 일체감을 느끼며, ‘동경(憧憬)의 대상’이므로 ‘사모의 정을 아뢰옵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¹³¹⁾

위의 사료에서 민중은 천황에 대한 가치의존이나 이상화는 물론이고 원호(元号)라는 시간성의 지배 속에서 복종하는 맹목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특유의 가족주의 국가관도 엿볼 수 있는데 그 정점에 국가의 가부장인 천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¹³²⁾

130) 栗原彬(1990) ‘日本民族宗教としての天皇制’ 『昭和の終焉』 岩波書店, p.199.

131) 栗原彬(2002) 現代天皇制論 『天皇と王権を考える』 岩波講座 第一卷 岩波書店, p.133.

132) 정창석(2006) 앞의 논문, pp.448-449.

3. 여론조사로 살펴본 천황에 대한 민중인식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신문 주도에 의해 역사상 최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¹³³과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이 1945년 겨울에 실시하였는데 90%이상의 국민이 「천황제」 유지를 찬성하였다.¹³⁴ 그뿐 아니라 일본국 헌법 공포·시행 전인 1946년 5월 27일 마이니치 신문 조간에 결과가 실린 조사에서는 상징천황제의 지지가 85%로¹³⁵, 종전 직후에도 많은 국민이 황실의 존속을 찬성하고 있다. 그 후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의 추이를 보면, 1990년에는 「지금의 상징천황으로 좋다」는 대답을 선택한 비율은 73%였고¹³⁶, 2000년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상징천황제를 지지한다는 비율이 80%¹³⁷, 2002년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여론조사에서는 「천황은 현재와 같은 상징이 좋다」고 대답한 국민이 86%였다.¹³⁸ 그 외에도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NHK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천황은 현재와 같은 상징으로 좋다」가 82%, 「천황에게 정치적 권한을 부여한다」가 6%, 「천황제는 폐지한다」는 8%이었다.¹³⁹ 이처럼 전후 이후에 살펴본 여론조사에서 일본국민들의 천황제 유지의 지지는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33)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여론조사도 상징 천황제에 대해서 78년부터 자체적·간헐적으로 약 40년간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항상 80%를 넘어섰다.

134) 여론조사의 방법이 GHQ의 주도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측면은 있지만, 일본 국민이 천황에 대해 가지는 조금은 솔직한 마음이 발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135) 毎日新聞(2016.2.8) 毎日新聞1946：新憲法の政府草案を歓迎 改憲論争・50年代に原形.

136) 読売新聞(1990.1.6) 朝刊.

137) 毎日新聞(2000.9).

138) 朝日新聞(2002.12.22), 全国面接方式の世論調査.

139) 平成に天皇観, NHK.

이러한 천황제 유지를 원하는 일본 국민들이 천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생긴다.

전후 세대의 천황에 대한 인식의 추이를 살펴보기에 좋은 자료는 197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NHK의 「日本人の意識」 조사¹⁴⁰⁾이다. 이 조사는 16세 이상의 국민 54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개인 면담 형식으로 천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하였다. 「천황에 대한 감정」을 묻는 질문에 <존경>, <호감>, <무감정>, <반감>의 선택지를 두었고 <국민전체>와 <16-29세>, <30-59세>, <60세 이상>의 세대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다음은 2013년 10월 실시된 9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표4】을 통해서 쇼와시대(昭和時代)에는 <무감정>이 상당히 많은 40%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존경>, <호감>, <반감>의 순서로 비율에 큰 증감이 없었다. 즉 쇼와시대는, 불황과 전쟁, 그리고 혼란과 경제발전이라는 격동의 시대¹⁴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에 대한 감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헤이세이(平成)로 이동하면서 이전까지 20%정도였던 <호감>이 2배로 증가해 <무감정>이나 <존경>을 상회해 가장 높았다. 그 이후로는 <호감>과 <무감정>이 번갈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존경>은 헤이세이로 접어들면서 감소하여 20%전후의 추이를 보이지만, 2008년에 25%, 2013년에는 34%까지 상승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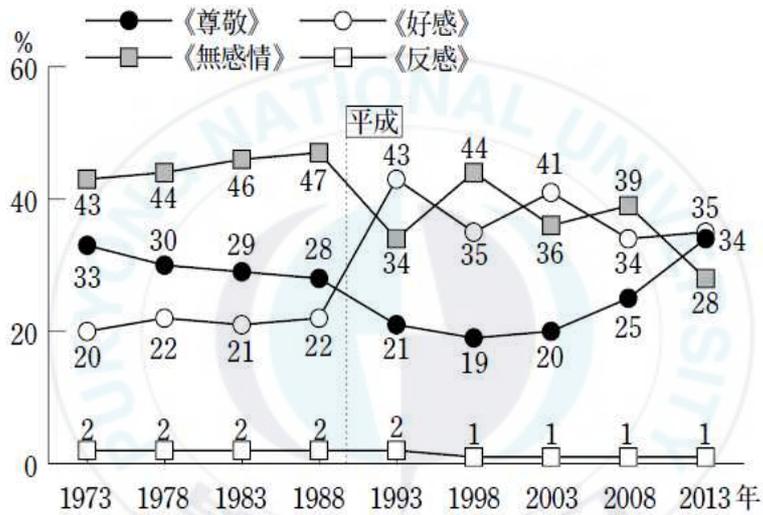
140) NHK는 1973년부터 5년마다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등에 관한 일본인의 의식을 조사하여 일본인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의견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0년 초반에는 오사카 만국박람회(日本万国博覧会, 1970) 개최와 오키나와 반환(沖縄返還, 1972) 등의 일도 있었으나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1970) 할복 자살 사건, 달러쇼크(1971), 아사마산장 사건(浅間山荘事件, 1972), 제1차 오일쇼크(1973) 등의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위기 전환용으로 각 분야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시선을 모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은 2013년 10월 제9회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고 조사 개시 후 40년 동안의 의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1) 백운용(2006) 「日本 象徴天皇制의 支持基盤과 手段에 관한 研究」 『학술발표대회논문집』 34 한국일본어문학회, p.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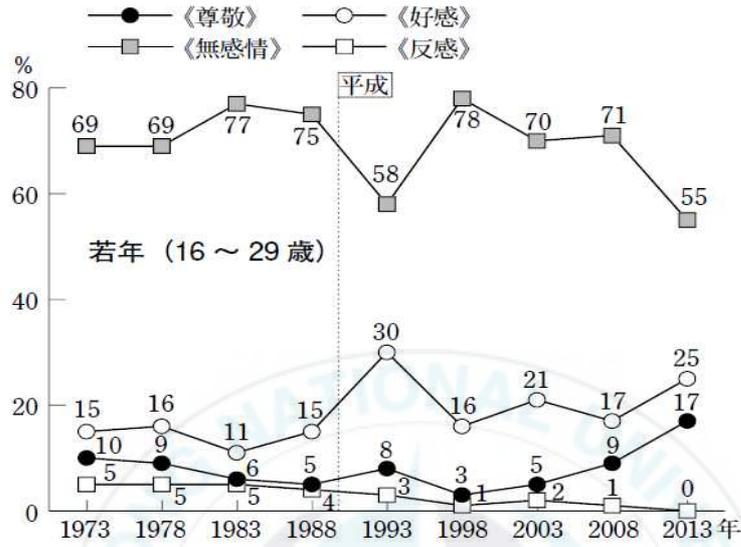
<호감>의 35%와 나란히 하였다. 이는 헤이세이에 접어든 이후 최고치이며 73년의 33%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반대로 <무감정>은 28%로 감소하여 지금까지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표4】 천황에 대한 감정(전체)¹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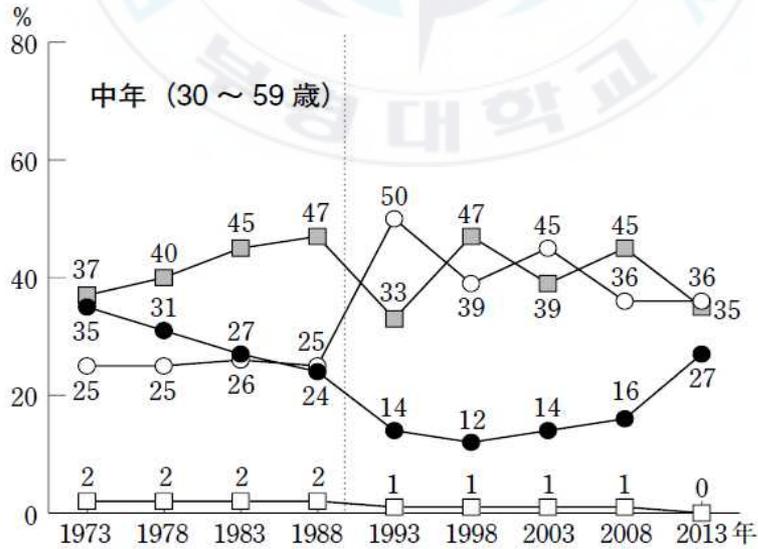


142) 【표4】 ~ 【표7】 는 第9回「日本人の意識」調査 日本人の意識・40年の軌跡(2)에서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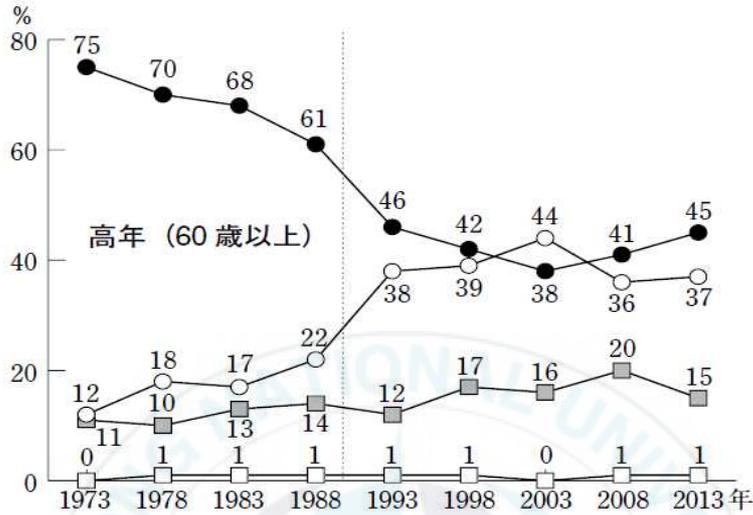
【표5】 천황에 대한 감정(16~29세)



【표6】 천황에 대한 감정(30~59세)



【표7】 천황에 대한 감정(60세 이상)



【표5】 【표6】 【표7】 은 청소년(16~29세), 중년(30~59세), 노년(60세 이상)으로 나누어 본 결과이다. 청소년층은 최근 5년간 <호감>과 <존경>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존경>은 17%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청소년층은 <무감정>이 항상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3년 조사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호감>과 사이를 좁혀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년층은 전체의 결과와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쇼와시대에는 <무감정>이 가장 많았지만, 헤이세이가 되면서 <호감>과 <무감정>이 교체되고 있다. 노년층은 쇼와시대에는 <존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헤이세이가 되면서부터는 <존경>과 <호감>이 접근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층, 중년층, 노년층 모두에서 <존경>이 증가했고, 비율로는 노년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년층, 청소년층의 순서는 지금까지와 변화가 없다.

다소 예상외의 조사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천황에 대한 감정이 전체 세대에서 <존경>과<호감>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그중에서 청년층의 천황에 대한 <무감정>의 비율은 줄어들었고 <존경>과<호감>의 비율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존경>과<호감>의 감정은 확연히 다른 것이다. 아키히토 천황이 즉위한 이후 ‘열린 황실’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천황에 대한 <호감>의 감정은 각종 패전트 등을 통한 이미지 쇄신의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존경>의 감정은 단지 ‘열린 황실’의 이미지 쇄신의 결과만으로 발생할 수 없는 감정이다. 천황이 상징적인 권위만이 남은 상황에서 <존경>의 감정이 상승한다는 점은 일본의 천황제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는 전조가 될 수도 있다.

다음 【표8】은 아키히토천황이 즉위한 헤이세이 이후의 신년일반참하객 수를 나타낸 표이다. 헤이세이 6년(1994년)에는 다른 해보다 한 회 더 많은 8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111,700명으로 가장 많은 참가인원수를 나타내면서 1회 평균 약 14,000명으로 이전의 1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이후로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폭 상승하여 1994년과의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헤이세이 21년부터는 횟수가 5회로 줄어들었지만 1회 평균 참가인원수는 15,000명을 넘어섰다. 헤이세이 24년에는 전체 참하객이 약 7,000명 줄어들었으나 이후 8만명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천황에 대한 <존경>과<호감>의 감정의 상승과도 연관되며 천황에 대해 일본국민이 변함없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표8】 헤이세이 이후의 신년일반참하객수 143)

年	参賀者数	年	参賀者数
平成2年(1990년)	※行われず	平成16年	68,100人
平成3年	77,770人	平成17年	75,080人
平成4年	80,930人	平成18年	50,210人
平成5年	52,700人	平成19年	68,830人
平成6年	111,700人	平成20年	79,610人
平成7年	71,800人	平成21年	75,790人
平成8年	64,700人	平成22年	79,290人
平成9年	59,300人	平成23年	77,110人
平成10年	68,200人	平成24年	70,770人
平成11年	64,200人	平成25年	78,760人
平成12年(2000년)	57,240人	平成26年	81,540人
平成13年	70,870人	平成27年	81,030人
平成14年	72,850人	平成28年(2016년)	82,690人
平成15年	77,710人		

※ 헤이세이(平成) 2년 신년일반참하는 전년도 1월 7일 쇼와천황의 사망으로 행해지지 않았음.

※ 헤이세이 21년 신년일반참하부터 행차횟수가 5회(헤이세이 3년 이후는 7회, 헤이세이 6년에만 8회)로 변경됨.

143) 궁내청 홈페이지 참조.

IV. 결론

천황은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메이지유신을 기점으로 정치적인 역할자로서 뿐만 아니라 조정의 환상적인 구성력에 힘입어 새롭게 창조·연출되었다. 그 노력에 힘입어 근대 천황상은 사회의 주체자인 민중 속에 절대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서 자리 잡았다. 그리고 패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천황상은 이전의 절대적 권력과 초월적 권위에서 시대의 요구에 의해 인간천황으로 재생산되며 상징천황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천황상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대상황에 맞는 천황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통으로 이름 붙여진 민속의례와 국가적 공식문화가 천황의 이미지 재창출과 재생산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는 천황상의 체계적인 이미지 구축과 천황을 새로운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현대를 살아가는 일본인들에게 천황은 변함없이 일본의 가장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천황상 구축에 이용된 여러 민속의례와 국가적 공식문화는 역사라는 무대 위의 화려한 주인공인 천황과 더불어 다양한 역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만들어진 천황상이 근·현대를 거치면서 국민통합의 상징 기능과 함께 끊임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천황상을 구축하기 위해 민속의례와 국가적 공식문화가 재변형과 재생산을 거듭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천황상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천황상의 전개과정을 메이지유신과 전후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맞추어 살펴보았다. 19세기 대내외적 위기에 놓이면서 민중들 사이에 생겨난 양이의식과 경제적 혼란 등은 근대 천황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배 권력은 전통과 문명을 접목시킨 절대적 권위의 천황상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서구 문명에 대항하여 이를 초월한 전통 카리스마로서의 천황상을 만들어 개화정책을 선두에서 적극 추진하며 민중을 개화의 영역으로 선동하는 역할과 권위 있는 질서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맡기려 한 것이다.

그 이후 80여 년간의 절대 권력과 권위의 원천이던 시대를 거쳐 새 역사가 시작된 전후 쇼와천황은 인간선언과 함께 종교적·정신적 혹은 정서적 권위만이 남겨지면서 새로운 천황상 연출의 기점이 된다. 전전의 천황상이 공적이미지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군인화·남성화된 이미지가 강했다면 패전 이후의 천황상은 수동적·비정치적 명성을 넓히려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전과 전후 모두 천황이라는 존재에 의한 국민통합 기능을 담당할 공통점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지배 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천황상이 창출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를 수용하는 민중의 반응도 살펴보았다. 메이지 초년에는 권력이 창출하고자 하는 천황상을 민중에게 강렬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고유서 하달이나 신성성 강조·민중교화를 꾀하는 신도 교화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는 민중과의 갈등이나 대립이 표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명개화기 이후, 막말부터 잉태되어 오던 천황상과 민중의식과의 상이성이 드러나는데 ‘양이’라는 공통향을 가지고 있던 양자가 메이지유신 이후 그 공통향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표출된 것이다.

지배세력은 민중 속에 뿌리내린 민속적 관행이나 전통의식을 정해놓은 논리의 틀에서 무력으로 탄압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무력으로 간단히 제거

되는 일이 아니었다. 민중의 저항에 직면한 신정부는 보은, 수치, 조적이라는 세 가지의 천황상 이데올로기 침투 논리와 3조의 교칙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교화 전개로 봉합하려고 한다. 전통의 상징을 정당화하고 천황의 권위를 빌려 개화의 필요성을 선전하며 민중과의 갈등을 완화시키려 한 것이다.

하지만 메이지 초반 천황상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갈등이 결코 천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성성이 강조된 인정의 군주상으로 민중을 교화하였고 민중의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포용으로 문명개화에 매진해 갔음을 확인하였다.

Ⅲ장에서는 민속의례와 국가적 공식문화로 만들어진 천황상에 대하여 민중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고찰하였다. 당시 지배세력의 입장에서 본 초기 메이지정부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민중의 천황에 대한 부적절한 이미지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근대적 국가형성에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민중의 열망과 애매하고 통합되지 않은 국민적 정체성 의식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민속의례 및 국가적 공식문화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적 통합을 표현하는 창출된 대표적 의례인 대상제, 천황의 전국순행과 관병식, 메이지헌법 발포식 등은 권위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근대화=문명화의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도구화가 되었다. 그 도구화에 힘쓴 사람들은 정부 관리는 물론이고, 학교, 지역엘리트, 매스컴, 그리고 반(半)공식적 애국주의 단체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끊임없는 새로운 국가의 상징·의례·이미지 등을 만들어내며 민중이 천황을 일본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구조를 가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적 공식문화로 국민통합에 적극적으로 이용된 대표적인 것은 천황의 전국순행이었다. 근대 문명화와 패전이라는 두 번의 역사적 전환기에 나타난 천황의 대대적인 전국순행에서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국가가 허

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민중의 민속적인 요소가 허용되었다는 점과 민중의 능동적인 천황상의 자유로운 인식이나 표현의 가능성은 박탈당했다는 점이다. 이는 민속신앙적인 여러 반응을 천황에 대한 존숭과 외경(畏敬)으로의 수렴을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근대 일본의 천황상 형성에 관계되는 민속의례는 국가 관리 아래 재편성되었고, 민속적 신앙 요소를 남겨 놓았다. 이는 민중의 근대 천황상에 대한 위화감을 완화시키고 천황 숭배가 마치 선형적으로 존속해 왔던 자연스러운 ‘천황신앙’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였다.

천황은 전국순행을 통해 기존의 권위적 존재로 지역사회에 선전되었고, 민중은 민속신앙적인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천황의 권위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 패전트도 근대 일본의 천황을 초월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분명한 것은 천황은 일본의 근대성을 창출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민속의례나 국가적 공식문화도 천황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민중이 천황을 인식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민속의례와 국가적 공식문화가 민중의 일상문화 속으로 스며들거나 혹은 민중의 일상문화가 새로운 국가적 공식문화 안에 녹아 들어가기도 하였다. 민중은 국가 패전트를 그들이 지켜오던 지역 마츠리와 유사한 것으로 지각(知覺)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관찰하면서 가공된 천황상과 민중의 일상문화는 서로 상호조합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어 온 것을 재확인하였다.

IV장에서는 근대 이후의 민중과 천황의 관계를 전전과 전후로 나누어 모방과 창조의 천황상을 민중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보고, 상징천황제 이후의 여러 여론조사를 통하여 민중의 인식 변화를 관찰하였다.

근대 일본의 지배 엘리트들은 천황을 초월적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대 초기에는 조슈·사쓰마가 조정하는 인형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천황에 대한 이러한 민중의 인식은 전전까지 대체로 구경의 대상이었

으며 1930년대에 들어와서야 현인신으로서의 천황 이미지가 침투하게 되었다. 그 이후 천황이 인간선언을 하게 되는 전후를 맞이하면서 신격은 사라지고 인격만 남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카리스마성은 상실하지 않았으며 민중에게 여러 혼란을 가져다주면서도 자애로움·현인신·무관심·천황을 이상화하는 등의 다양한 시선의 선택은 민중의 몫이 되게 하였다.

패전 이후 일본의 전통적이고 일본적인 것이 많이 부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에서는 일본국민이 거부하지 않는 천황제가 유지되고 있다.¹⁴⁴⁾ 이는 신헌법에 의한 상징천황이나 인간천황 개념의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근대 이후부터 만들어진 절대적인 민중의 존송심을 바탕으로¹⁴⁵⁾ 이미지 쇄신에 힘을 쏟았던 결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이미지 쇄신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전통으로 이름 붙여진 민속의례와 만들어진 국가적 공식문화이고 그로 인해 새로운 천황상이 창출되었으며 천황제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NHK의 「일본인의 의식」 조사를 통해서 천황에 대한 <호감>과 <존경>의 감정이 연평대에 관계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키히토천황이 즉위한 이후에 추구한 ‘열린 황실’이라는 이미지 쇄신의 노력도 있겠지만 근대 이후 두 번의 역사적 전환기를 거치면서 쌓아온 천황과 일본국민 사이의 내면화가 더욱 강고해진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아키히토천황이 생전 퇴위¹⁴⁶⁾ 의향을 표명하면서 사회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은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앞세워 당위성을 강조하며 천황제를 유지해온 만큼 새로운 천황상을 내놓을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민속의례·국가적 공식문화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온 천황상을 일본만의 독자

144) 백운용(2006), 앞의 논문, pp.512-518.

145) 손안나(2010) 앞의 논문, p.74.

146) 천황이 살아있는 동안 물러난 사례가 없지 않았는데 에도(江戶)시대 후반기인 1817년 고가쿠(光格) 천황(1780~1817년 재위)이 마지막이었다.

적인 요소를 동원해 새로운 천황상으로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천황이 모방과 창조로 새겨진 국가적 공식문화의 주역이면서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새롭게 탄생할 천황제에 주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일본인에게 있어 일본의 천황제와 전통문화는 일본인의 가치체계를 규율한다고 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즉 일본의 천황제가 문화적 전통처럼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은 민속의례나 국가적 공식문화와의 연관성을 빼놓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창출된 근현대 천황상과 민중의 인식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천황제와 민중의 민속의례가 밀착되어 현대 일본의 생활문화로까지 이어진 다양한 형태의 문화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및 논문

- 강상규·김세걸(2014) 『근현대일본정치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노마 필드 著·박이엽 訳(Norma Field, 2014)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 창비.
- 다카시 후지타니 著 한석정 訳(T. Fujitani, 2003) 『화려한 군주(Splendid Monarchy :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이산.
- 박진우(2004)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와 민중-근대 천황상의 형성과 민중-』 J&C.
- _____(2006) 『21세기 천황제와 일본-일본 지식인과의 대담-』 논형.
- 비즐리 著·장인석 訳(W.G. Beasley, 2000) 『일본 근현대사』 을유문화사.
- 스와 하루오 著·이명옥 訳(諏訪春雄, 2009) 『세 개의 키워드로 본 일본인』 열린책들.
- 스즈키 마사유키 著·류교열 訳(鈴木正幸, 1998)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 야스마루 요시오 著·박진우 訳(安丸良夫, 2008) 『근대 천황상의 형성』 논형.
- 야스마루 요시오 著·박진우 訳(安丸良夫, 2008) 『현대일본 사상론』 논형.
- 오구마 에이지 著·한철호 訳(小熊英二, 2006) 『일본이라는 나라』 책과

함께.

일본부락해방연구소 著 · 최종길 訳(2010) 『일본 부락의 역사』 도서출판 어문학사.

앤드루 고든 著 · 문현숙·김우영 訳(Andrew Gordon, 2015) 『현대일본의 역사1』 이산.

_____ (Andrew Gordon, 2015) 『현대일본의 역사2』 이산.

에드윈 라이샤워 著 · 전해중 訳(Edwin O. Reischauer, 1985) 『동양문화사』 을유문화사.

조용래(2009), 『천황제 코드』 논형.

존 다우어 著 · 최은석 訳(JOHN W.DOWER, 2009) 『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하버트 빅스 著 · 오현숙 訳(Herbert P. Bix, 2010) 『히로히토 평전』 삼인.

한도 가즈토시 著 · 박현미 訳(半藤一利, 2011) 『쇼와사1』 루비박스.
_____ (半藤一利, 2011) 『쇼와사2』 루비박스.

한영혜(2001) 『일본사회개설』 한울.

황달기(2004) 『일본의 축제와 지역사회』 제이앤씨.

김필동(2003) 「현대일본인의 천황관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21 일본어문학회.

박진우(1995) 「近代轉換期에 있어서 天皇像과 民衆」 『日本歴史研究』 2 일본사학회.

_____ (1998) 「文明開化期の 天皇像과 民衆」 『日本学報』 40 韓国日本学会.

_____ (1999) 「天皇巡幸의 展開와 民衆」 『역사와 세계』 23 부산대사학

- 회.
- _____ (2001) 「現代日本社会와 象徴天皇制」 『일본역사연구』 3 일본사학회.
- _____ (2001) 「네오내셔널리즘과 상징천황제」 『일본어문학』 19 대한일어일문학회.
- _____ (2001) 「現代 日本社会와 象徴天皇制」 『日本歴史研究』 13 일본사학회.
- 백운용(2006) 「日本の 象徴天皇制에 관한 研究」 『학술발표대회논문집』 7 한국일본어문학회.
- _____ (2006) 「日本 象徴天皇制의 支持基盤과 手段에 관한 研究」 『학술발표대회논문집』 34 한국일본어문학회.
- _____ (2007) 「일본 천황제의 역사적 변모 과정에 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1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손안나(2010) 「쇼와천황(昭和天皇)의 전후 순행과 상징」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권(2010) 「근대 천황제 인식논리와 역사인식의 현재-기억의 공동체로서의 천황제 인식-」 『일본근대학연구』 30 한국일본근대학회.
- 이상훈(2003) 「상징천황제의 딜레마」 『日語日文学研究』 47 한국일어일문학회,
- 정창석(2006) 「현대천황제 사상」 『학술발표대회논문집』 7 한국일본어문학회.
- 桂島宣弘(2007) 「日本近代天皇制と民衆」 『인문학논총』 2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安丸良夫·송희철·조용상·여박동·小林幸夫·栗田英二·김용기·정대균(1991) 「일본의 근대 천황제와 민중의식」 일본학지 일본문화연구소 주최 초청강연회.

외국서적 및 논문

- 皇室事典編集委員会=監修(2009) 『知っておきたい日本の皇室』 角川文庫.
- 鳥海靖(2013) 『日本近代史』 山川出版社.
- 遠山茂樹(2000) 日本近代思想大系2 『天皇と華族』 岩波書店.
- 宮内庁(1970) 『明治天皇紀』 吉川弘文館.
- 栗原彬(2001) 現代天皇制論 『天皇と王権を考える』 岩波書店.
- _____ (1990) 『昭和の終焉』 岩波書店.
- 色川大吉(1974) 日本の歴史21 『近代国家の出発』 中央公論社.
- 今谷明(1991) 『天皇制はなぜ続いたか』 新人物往来社.
- 大日方純夫・山田朗・山田敬男・吉田裕(2011) 宮地正人 監修 『日本近現代史
を読む』 新日本出版社.
- 安丸良夫(1974)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 青木書店.
- 安丸良夫・宮地正人(2000) 『宗教と国家』 岩波書店.
- 安丸良夫(2001) 『近代天皇像の形成』 岩波書店.
- 堀一郎(1951) 『民間信仰』 岩波書店.
- 福澤諭吉(2012) 『学問のすすめ』 致知出版社.
- 牧原憲夫(1986) 『明治建白書集成』 第三卷 筑摩書房.
- _____ (2005) 「近大民衆(生活者)政治意識を考える」 『金沢大学文学部日
本史学研究室紀要』 金沢大学文学部日本史学研究室.
- 吉野作造(1929) 『明治文化全集第一卷 -皇室篇-』 日本評論社.
- _____ (1929) 『明治文化全集第二十卷 -文明開化篇-』 日本評論社.
- _____ (1929) 『明治文化全集第二十二卷 -雑史篇-』 日本評論社.

인터넷참조

http://nikkenkyo.jp/before/back_number/compass781/08-09holiday/index.htm/

日本建設産業職員労働組合協議会.

http://www.nhk.or.jp/bunken/summary/research/report/2014_08/20140801.pdf/

NHK放送文化研究所 日本人の意識・40年の軌跡 (2)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79884#csidxfcc1e192edc3a7685093e5b509912bf./>

保坂祐二(2016.9.5) 「[일본은 지금] 인간이 되고 싶다는 일왕의 ‘생전퇴위’ 메시지」 『이투데이 칼럼』 .

